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주신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꿀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 최봉춘, 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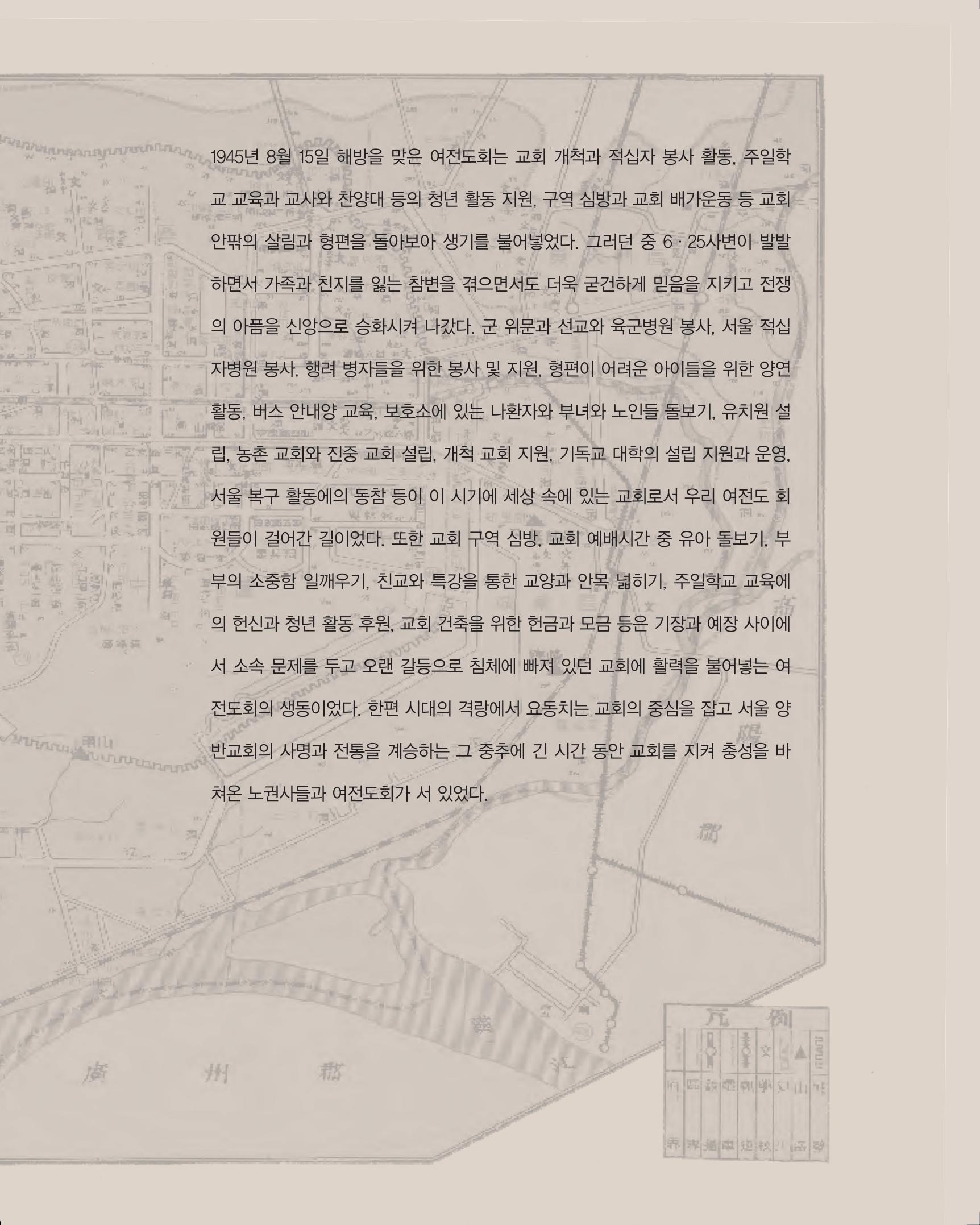
3.

겨레와 교회의 아픔을 품은  
신앙의 어머니들

(1945-1976)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은 여전도회는 교회 개척과 적십자 봉사 활동, 주일학교 교육과 교사와 찬양대 등의 청년 활동 지원, 구역 심방과 교회 배가운동 등 교회 안팎의 살림과 형편을 돌아보아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던 중 6·25사변이 발발하면서 가족과 친지를 잃는 참변을 겪으면서도 더욱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전쟁의 아픔을 신양으로 승화시켜 나갔다. 군 위문과 선교와 육군병원 봉사, 서울 적십자병원 봉사, 행렬 병자들을 위한 봉사 및 지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양연활동, 버스 안내양 교육, 보호소에 있는 나환자와 부녀와 노인들 돌보기, 유치원 설립, 농촌 교회와 진중 교회 설립, 개척 교회 지원, 기독교 대학의 설립 지원과 운영, 서울 복구 활동에의 동참 등이 이 시기에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 여전도회원들이 걸어간 길이었다. 또한 교회 구역 심방, 교회 예배시간 중 유아 돌보기, 부부의 소중함 일깨우기, 친교와 특강을 통한 교양과 안목 넓히기, 주일학교 교육에의 헌신과 청년 활동 후원, 교회 건축을 위한 현금과 모금 등은 기장과 예장 사이에서 소속 문제를 두고 오랜 갈등으로 침체에 빠져 있던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여전도회의 생동이었다. 한편 시대의 격랑에서 요동치는 교회의 중심을 잡고 서울 양반교회의 사명과 전통을 계승하는 그 중추에 긴 시간 동안 교회를 지켜 충성을 바쳐온 노권사들과 여전도회가 서 있었다.

### 3.1 여전도회 연표 3: 겨레와 교회의 아픔을 품은 신앙의 어머니들 (1945–1976)

#### ¶ 겨레와 교회의 아픔을 품은 신앙의 어머니들 (1945–1976)

##### ¶ 해방과 동란 중의 교회 (1945–1953)

담임목사	최거덕 김종대	여성 부교역자	박애순
시무장로	이경호 이필현 백지엽 임병철 이봉영 안태인 윤택선 김응락 정인환 장일섭	여전도회 회장	김계수 이순정
연도	표어 교회 연표	여전도회 회장	<p><b>여전도회 연표</b></p> <p>[범례: ●교회연합 ♥사회봉사 ♣보조 ♠선교 ★사회표창 ♡교회봉사 ☆교회기념 ※여전도회관련 주보광고]</p>
1945	해방과 함께 제직 총사퇴 후 재임명  김종대 일본기독교 정동 제일교회를 접수 「광화문 교회」로 개칭하여 예배	–	8월 15일 해방을 맞다. 해방 이후 ‘부인회’, ‘여자 면려 회’, ‘부인 면려회’, ‘부인 전도회’, ‘여전도회’ 등으로 불 리던 명칭을 ‘여전도회’로 통일하여 부르다
1946	전도  제6대 담임목사 김종대 부 임  광화문교회를 덕수교회로 개칭하여 창립예배  유치원 재개원  해방 제7호 주보 보존 (1946. 4. 28)	–	공덕귀, 조선신학교 여자신학부 전임강사로 교수 시 작하다(1948년까지)  3월 제6대 목사 김종대 부임하다(1953년 8월 사임)  3월 10일 최거덕 목사가 광화문교회를 「덕수교회」로 개칭하여 창립예배를 드린다. 광화문 남쪽 소재 일곱 세대를 덕수교회로 분할하고, 3년 간 부활주일 헌금 을 보내어 돋다. 이때 개척부대로 나간 일곱 세대 중 유진경, 윤택선 등이 3년 후 돌아오다.

			<p>4월 폐쇄되었던 유치원을 다시 개원하다(1950년 6·25사변으로 중단, 1954년 다시 개원 후 1972년 무기 휴원 하기까지 매년 졸업생 배출, 해방 후부터는 담임 목사가 당연직 원장)</p> <p>♡ 4월 28일 해방 제7호 주보에 기재된 주일 오전 당번집사 총 12명:</p> <p>(남) 오종환 유병국 노덕상 임병욱 정경덕 한규복 (여) 정송자 유각경 문서혁 오현주 안 현 김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19일 제13회 여전도회 연합회 전국 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개최되다</li> </ul>
1947	—	—	<p>♦ 3월 수원교회를 개척하고 장순덕 전도사를 파송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각경,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 피선되다</li> <li>● 유각경, 여전도회 전국 연합회 제15대 회장으로 제14회 여전도회 연합회 전국 대회를 영락교회에서 개최하다</li> </ul>
1948	—	김계수	이후 매년 회장 명단이 빠짐 없이 기록 보존된다
1949	<p>믿음을 주장하사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p> <p>청년 면례회 총회</p> <p>중등 면례회 조직</p> <p>구역 수: 17, 권찰 수: 21</p> <p>합동찬송가 출판 광고</p> <p>창립 40주년 기념 음악예배</p> <p>추기 대심방</p> <p>부흥 사경회(강사: 손양원 목사)</p>	김계수	<p>♡ 주일당번 여집사 명단(한 주당 세 명씩):</p> <p>윤경희 김신복 최노애 방순실 이병갑 김혜석 김정희 최덕행 오현주 유각경 문서혁 김계수 정성훈 문순복 이순정 김정묵 채기순 김신원 구신명 주월영</p> <p>1월 9일 청년 면례회 총회(회장: 노영복 정재선, 서기: 선우현 민정홍, 회계: 이인선 윤남경)</p> <p>1월 27일 중등 면례회 조직(회장: 김홍태, 부회장: 노병린 오전순, 서기: 노병인 이희선, 회계: 이종상 이하복)</p> <p>여전도회 예배로 드린 주일저녁 예배일: 1/16, 2/20, 10/16, 12/18</p>

			<p>♡ 1월 19일 주보에 수록된 구역과 담당 권찰:</p> <p>안국(홍숙자), 계동 동(오현주), 계동 서(최옥경), 남촌(박정의), 송현(김정묵), 원서(유귀순), 돈암(안정완), 재동(유각경), 동대문(문서혁), 서남(김신복), 팔판(강은애 최옥경), 가회 동(이순정), 가회 서(정성훈 김주명), 서대문(김계수), 효자(김신원 최덕행), 소격(송정의 이병갑), 삼청(허영숙)</p> <p>이상 17개 구역, 21명 권찰, 단, 최옥경 1명 중복</p> <p>이중 박정의, 강은애, 최덕행, 이병갑, 허영숙(=허영순=허영실)은 1954년 이후 여성제직 명단에 나타나지 않음</p> <p>5월 5일 (목) 여전도회 주최 야외예배 친목회</p> <p>♠ 5월 광주군 길리교회에 전도사를 파송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12일 (절제주일) 오후 2시 남산에서 금주 단연 신도대회 모임, 이날 본 교회 주일 저녁예배는 청년회 주최 절제 예배로 드림</li> <li>● 6월 23일 (목) 기독교 구국 총궐기 대회 거행</li> <li>● 7월 31일 오후 2시 반 새문안 예배당 현당식과 송순명 장로 45년 근속 기념식</li> <li>● 8월 20일 (토) 한석진 목사 10주년 추도회가 재경 유지의 발기로 본 교회에서 모임</li> <li>● 10월 17일 (월) 여전도회, 시연합회와 함께 삼청공원에서 추수 감사절 야외 간친회로 모임</li> <li>● 유각경, 10월 적십자사 부총재로 취임하다</li> </ul> <p>11월 24일 백정희의 차남 이종완 중위(육사 출신, 6월 용산에 있는 육군 특별부대 소위 임관), 군 내부의 좌우 갈등과 분열 중 죽음</p>
1950	<p>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p> <p>춘기 대심방</p> <p>6·25사변으로 예배당 인민군 야전병원으로 압류</p> <p>9·28 서울 수복, 예배 재개</p>	김계수	<p>♡ 1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주일당번 여집사 명단(한주당 세 명씩):</p> <p>채기순 구신명 김정희 김정묵 이순정 최노애 김신복 윤경희 최덕행 김혜석 문순복 주월영 이병진 방순실 백정희 정성훈 김신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1일 광고: 오늘부터 만국교회 기도회주간</li> </ul>

			<p>1월 1일 광고: 배가운동 – 각 소속 단체의 질과 양으로 교회 출석, 유년 주교 중등부 청년회 부인회 찬양대 모두 총동원 배가;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헌금합시다, 교회 위해 배가합시다.</p> <p>1월 22일 광고: 지이산 전투지구에 구국 전도회가 나가 전도 중이니 기도 바람</p> <p>♡ 4월 2일 주일 당번 권사: 공덕귀 송두옥 허영순</p> <p>♥ 적십자병원(환자 빨래, 가제 접기, 면봉 만들기 등)</p> <p>6·25사변으로 예배는 중단되고 예배당은 인민군에게 압류되어 임시 야전병원으로 사용되다</p> <p>국군과 유엔군에 의한 9·28 서울수복으로 흘어졌던 교우들이 모여 다시 예배 드리다</p> <p>백정희의 부군 이규왕과 장남 이종익 피랍, 납북</p> <p>오현주의 부군 강낙원 피랍, 납북</p> <p>김주명의 부군 오봉빈 피랍, 납북</p> <p>9월 21일 고병길의 부친 고영환 피랍, 납북</p> <p>9월 24일 고병길의 모친 허영순 삼청공원에서 인민군에 의해 살해</p>
1951	부산 피난 안동교회	이순정	<p>1·4후퇴로 교인 다수가 남쪽으로 피난, 부산 보수동 소재 박계란 집사의 집에 '피난 안동교회'로 모여 서울 수복 때까지 예배 드리다</p> <p>일부 서울에 남은 교인들이 본 교회에서 계속 회집하다</p>

### ¶ 기장과 예장의 분열 가운데에서 (1953–1963)

담임목사	이금식	여성 부교역자	박애순 윤경애 조수재
시무장로	이경호 이필현 백지엽 이봉영 안태인 윤택선 장일섭 방순원 이해동 정석원 노영복	여전도회 회장	안정완 공덕귀 윤경희 김신복 방순실
연도	표어 교회 연표	여전도회 회장	<p><b>여전도회 연표</b></p> <p>[범례: ●교회연합 ♥사회봉사 ♦보조 ♪선교 ★사회표창 ♡교회봉사 ☆교회기념 ※여전도회관련 주보광고]</p>
1953	본 교단 총회, 조선신학교 직영 취소. 기독교장로회 발족	안정완	4월 2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38회 총회에서 김재준 목사의 면직을 선언, 조선신학교 직영을 취소하다. 6월 10일 기독교장로회가 발족하다.

<p>고등 면례회 조직 추기 대심방 제7대 담임목사 이금식 부임 유치원 재개원 가결 수복 제1호 주보 발간 (1953. 11. 1.)</p>	<p>9월 고등 면례회 조직(회장: 민석홍) 9월 20일 당회는 유치원을 다시 시작하기로 가결하다 ♡ 11월-12월 주일 당번 여집사 명단     최노애 윤경희 김신복 김신원 김혜석     백정희 채기순 송두옥 강자경 이순정     방순실 주월영 공덕귀 박계란  11월 1일 주일 수복 제1호 주보 발간 ♡ 11월 1일 광고: 추기 대심방 구역     (권찰 – 장로 – 권사 – 집사):         월 – 관훈동 일대         (박정희 – 이선일, 장일섭 – 유각경 – 김혜석)          화 – 관철, 회현, 주자동 일대         (최노애 – 안태인, 백지엽 – 오현주 – 주월영)          목 – 구삼청, 팔판, 계동 일부         (이정복 – 오종환, 이필현 – 유진경 – 백정희)          금 – 효자, 청운동 일대         (김신원 – 이선일, 안태인 – 허대은 송정의 – 이순정)          토 – 용산구 일대         (황말선 – 백지엽, 이필현 – 정송자 – 강자경)  ♡ 11월 8일 광고: 추기 대심방 구역     (권찰 – 장로 – 권사 – 집사):         월 – 삼청동         (장영신 – 백지엽, 장일섭 – 송정의 – 구신명)          화 – 마포 서대문 구역         (김계수 – 이선일, 장일섭 – 정송자 – 방순실)          수 – 명윤 돈암 구역         (안정완 – 이필현, 이선일 – 유진경 – 김신원)          목 – 동대문 구역         (정성훈 – 백지엽, 안태인 – 오현주 – 최노애)  11월 15일, 24일 광고: 추기대심방 구역     20, 24 – 가회동 서부     21, 26 – 청량리  12월 6일 제7대 목사 이금식 부임하다(1962년 12월 사임)</p>
--	---

			<p>♡ 12월 13일 주보에 수록된 권찰 명단:</p> <p>김은조 송두옥 서금석 김형숙 정성훈 방순실 송두윤 임동순 박정희 황말선 김주경 최옥경 윤상순 강자경 김신원 이형남 최명열 장영신 김계수 오현주 백정희 이정복 안정완 서성실 송정의 엄지순</p>
1954	<p>풍금 구입</p> <p>경기노회가 예장과 기장으로 분열하자 중립 선언</p>	공덕귀	<p>♡ 6·25사변 중 없어진 풍금과 동형의 풍금을 11만 환을 주고 구입하다</p> <p>풍금 구입을 위해 현금한 총 17명 중 여전도 회원 12명 (허대은 김순식 이순정 김신복 구신명 주월영 김정묵 박계란 송두옥 정성훈 황말선 최옥경), 여자 청년 1명 (민정홍), 남성 교우 4명(정석원 이필현 백지엽 유한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안성군에 양성교회를 개척하고 김영석 목사를 파송하다(1959년 8월 23일 현재까지 지원)</li> <li>● 6·25사변으로 중지되었던 여전도회 연합사업에 참여하다</li> <li>♥ 백정희 방순실 서울적십자병원 봉사에 열심을 내다(1961년까지)</li> </ul> <p>6월 10일 한신(조선신학교)측 기독교장로회로 총회 개최, 총회장 박용희 목사</p> <p>11월 14일 경기노회가 예장과 기장으로 분열되자 당분간 노회 참석을 보류하기로 하다</p>
1955	<p>중학생회 창립총회</p> <p>한국신학대학(기장)의 졸업식을 안동교회당에서 거행</p> <p>당회 기장 경기노회로 소속 결정</p> <p>창립 46주년 기념 신양부흥회(강사: 김관석 선생, 유동철 목사, 정대위 목사)</p> <p>부흥회(강사: 조경우 목사)</p>	공덕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각경, 여자 기독교 절제회 연합회장에 선임된다.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 10주년 근속 표창장을 수여하다.</li> <li>● 유각경, 장로교여자대학(서울여대) 기성회 위원으로 활동하다. 백정희 등 유각경과 함께 장로회여자대학 건립 모금에 앞장 서다</li> </ul> <p>1월 31일 중학생회 창립 총회</p> <p>3월 15일 한국신학대학(기장)의 졸업식을 안동 교회당에서 거행하다</p> <p>11월 20일 당회가 대한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로 교회 소속을 결의하다</p>

1956	제6대 여교역자 윤경애 부임 남전도회 조직 이필현 장로 고소장 당회 접수 교인 진정서 당회 제출 신양 부흥회(강사: 천세광 목사)	윤경희	1월 22일 제6대 전도사 윤경애 부임하다(1959년 6월 26일 경동교회로 이임) 1월 22일 남전도회 조직(회장: 이봉영) 2월 송정의 유진경 유각경 오종환 안정완 김계수, 안동 교회 당회장 앞으로 “이필현 장로에 대한 고소” 제출 3월 4일 유각경 송정의 오종환 등 교인 200여 명이 진정서를 당회에 제출하여 기장 소속으로 하기로 한 결정을 번안하여 중립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다 3월 20일 당회는 기장 소속은 그대로 하되 노회총대 파송만 보류하기로 하다 ● 유각경, 기독교 가정협회 이사(1956)로 활동하다
1957	신양 부흥회(강사: 이호빈 목사) 대학생회 창립총회 교회 현판 「장로교 안동 교회」로 바뀐다 교인 다수 장로 신임투표 요구 김창제 선생 별세	윤경희	6월 대학생회 창립 총회(회장: 김효진, 부회장: 장석우, 서기: 윤경남) 10월 교회 현판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에서 ‘장로교 안동교회’로 바뀐다. 그러자 연로한 권사들을 포함한 다수 교인이 공동의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에 반발, 헌법에 따라 3년마다의 장로 신임 투표를 요구하다
1958	하몬드 올갠 봉헌예배 추계교회 신설	김신복	♣ 서울 농원교회, 우이동 실명용사촌교회(상이용사 신생회 산하 교회, 김성무 전도사) ♠ 경기도 용인군 추계교회를 신설하고 김운세 전도사를 파송하다(1959년 5월 현재 교인 70명 회집) ♥ 적십자사(1963년까지)
1959	청년회 창립총회 신양 부흥회(강사: 김응조 목사) 장로 신임투표 실시 당회 기장 소속을 취소하고 다시 중립 견지 결정	김신복	1월 22일 청년회 창립총회(회장: 이은수, 부회장: 민정홍, 서기: 윤경남, 회계: 김용희, 총무: 이종상) 창립 5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다. 이 때 발간된 총 14 쪽의 「안동교회 약사」에 역대 여전도사 명단과 역대 유치원장 명단 등이 수록된다 역대 여전도사: 1. 이신실 2. 안찬주 3. 백신영 4. 김숙희 5. 변영하 6. 박애순 7. 윤경애

	<p>제7대 여교역자 조수재 부임</p> <p>심령 부흥회(강사: 이호빈 목사)</p>		<p>역대 유치원장: 1. 김매분(겐소 부인) 2. 유각경 3. 김종대 4. 이금식</p> <p>중고등부 근속: 이필현(부장 16년) 오현주(반사 38년)</p> <p>유년부 근속: 안태인(부장 17년) 이인선(반사 14년) 민 정홍(반사 14년)</p> <p>교회출석 근속자 22명:</p> <p>남(4명): 정경덕(50년) 윤택선(46년) 이선일(41년) 백낙성(35년)</p> <p>여(18명): 유각경(50년) 윤명사(49년) 송정의(45년) 허대은(45년) 윤예경(45년) 윤마리아(43년) 변영하(43년) 윤활란(40년) 홍숙자(38년) 오현주(38년) 유진경(35년) 안정완(35년) 박애순(35년) 김신복(32년) 이순정(32년) 최옥경(30년) 정송자(30년) 전영애(28년)</p> <p>7월 12일 이선일, 이필현, 백지엽 신임 투표 거부 구 두 사임, 당회 수리. 이날 열린 공동의회에서 이봉영, 안태인, 이해동 세 장로만 신임 투표 결과 안태인, 이 해동만 신임을 얻다</p> <p>7월 27일 공동의회에서 휴무 중이었던 윤택선이 다시 시무 투표를 받고 장로가 되다. 당일 현재 시무 장로 안태인, 이해동, 윤택선 3인</p> <p>8월 2일 당회 기독교장로회의 적을 취소하고 중립을 견지하기로 가결하다</p> <p>9월 20일 제7대 전도사 조수재 부임하다(1971년 8월 사임)</p>
1960	<p>윤보선 대통령 취임</p> <p>신양 부흥회(강사: 김세진 목사)</p>	방순실	<p>※ 7월 10일: 오늘 저녁 여전도회 헌신예배(강사: 장신 정 목사, 제목: 특명 받은 여전도인(요 20:11-18))</p> <p>※ 8월 7일: 여전도회에서 7월부터 서대문구 녹번동 근방에 신설교회 시작하였으니 위해서 기도 바람</p> <p>8월 13일 윤보선 대통령 취임하다(영부인: 공덕귀)</p> <p>♣ 적십자사(년 3,000환 씩)</p> <p>★ 김효숙, 방순실, 백정희가 적십자사 봉사로 표창 받다</p>

1961	<p>교회 대지 21평을 더 구입하여 총 417평이 되다</p> <p>교인 청원 결의서 당회 제출</p> <p>서리집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열림</p>	방순실	<p>7월 8일 교인 오현주 외 247명이 날인한 청원 결의서 당회 제출: 1. 우리 안동교회는 오십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에 복귀 소속할 것 2. 우리는 현재의 교역자 이금식 목사님을 절대 지지하기로 결의함</p> <p>11월 이금식 목사 예장 경기노회 방청, 일부 청년 이 목사 사퇴 요구 유인물 배포</p> <p>12월 31일 62년도 서리집사를 선출하기 위한 공동의회가 모이다. 남자 19명, 여자 47명 후보자 명단을 배부하고 164명이 투표한 결과 무효표 4표, 과반수인 80표 이상을 받은 서리집사는 남자 13명, 여자 23명이 되다</p>
1962	<p>장로·청년 조사위원 경기 노회 서기 목사 방문 결과 보고</p> <p>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로 복귀</p> <p>세례교인 일동 청원서 제출</p>	윤경희	<p>1월 10일 장로 안태인 이해동 정석원, 청년 윤혜구, 최인원, 전정희가 조사위원으로 경기노회 서기 김덕수 목사 방문</p> <p>조사 여부: 1. 안동교회와 이금식 목사가 예장 정식회원이 되었는가 여부 2. 안동교회가 1958년 이후 예장에 명단이 빠졌다가 1961년에 신가입 되었는가 여부 조사</p> <p>조사 결과: 1. 이금식 목사는 1955년 11월(65회) 노회시부터 1959년 11월(73회) 노회시까지 65, 66, 68, 70, 72, 73 회 노회시 무임목사란에 명단 기재 확인, 1961년 5 월(76회) 노회시 임원들에 의해 또 서기의 권한과 책임 하에 서기의 자의로 시무목사란 종중(鍾中) 시찰구 16 번차로 옮겨 기재, 동년 11월(77회) 시 역시 시무목사란에 기재됨 2. 이금식 목사는 노회시 방청석에 앉아 호명시 대답하지 않았고 어떤 부서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정식가입의 요청도 없었고 권리를 포기한 행동을 함. 또 종종시찰구에서도 이금식 목사에 관한 보고가 없었음</p> <p>2월 4일 정기당회 “현재 교회의 예배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데 관하여 개인적으로 그 행동자들을 면접하고 권유하기로 결정”</p> <p>3월 3일 임시당회(참석자: 이금식 안태인 이해동 정석원) 1. “1961년 7월 8일부의 247명이 서명 날인하여 당회에 제출한 청원서를 정식으로 접수하여 그대로 가결하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에 복귀하기로 하는 광고를 명 삼월 사일 주일 광고 시간에 하기로” 가결하다</p>

			<p>3월 4일 창립 53주년 첫 주일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로 복귀하다. 오현주, 대리석 현판 기증하다</p> <p>3월 10일 정기당회에서 이금식 목사 사의 표명, 11월 20~22일 열린 제79회 경기노회에서 이금식 위임목사 사면 청원 허락, 후임 목사 올 때까지 당회장권만 맡기로 하다</p> <p>12월 12일 세례교인 288명 연명 날인 청원서 당회 제출 1. 이금식 목사 사표를 받을 수 없다 2. 장로 시무 투표를 실시하라</p> <p>12월 30일 공동의회 묘동교회의 오덕유 목사 청빙 결정, 이금식 목사는 묘동교회로 부임하게 됨</p>
1963	제8대 담임목사 오덕유 부임 추계 사경 집회(강사: 홍대위 목사)	윤경희	<p>2월 17일 제8대 목사 오덕유 부임하다(1973년 5월 사임)</p> <p>♥ 육군병원 (매주 금, 토) ♣ 대만전도사업 성전건축</p>

### ¶ 새 성전 건축을 꿈꾸다 (1963~1976)

담임목사	오덕유 용재호	여성 부교역자	조수재 정영자 김경남
시무장로	안태인 윤택선 이해동 정석원 김충선 이효종 김희선 이 본 박희욱 이종상 민대홍	여전도회 회장	백정희 이현자 김성재 공덕귀 조화순
연도	표어 교회 연표	여전도회 회장	<p><b>여전도회 연표</b></p> <p>[범례: ● 교회연합 ♥ 사회봉사 ♣ 보조 ♪ 선교 ★ 사회표창 ♡ 교회봉사 ☆ 교회기념 ※ 여전도회관련 주보광고]</p>
1964	성전 건축위원회 조직	백정희	<p>♣ 이태원교회(박응용 목사 시무, 월 2,000원)</p> <p>● ※ 1월 26일 영락교회에서 열린 여전도회연합회 주최 구국기도회 참석</p>
1965	고난주간 특별집회(강사: 문익환 목사, 한철하 박사, 이종성 박사, 마경일 목사)	백정희	<p>♥ 애우관(초교파적 연합단체, 절제부에서 매월) ※ 1월 3일: 정기총회, 4일 (월) 10:30</p>

1966	고난주간 특별집회(강사: 이종성 박사, 정진경 목사, 흥현설 박사)	이현자	<p>♣ 양주군 양수리교회 전도사업 원조, 양주군 진중리 교회(5월부터 1969년 8월 31일 현재 3년간 보조, 1969년 8월 말 당시 전도사 이문규)</p>
1968	제8대 여교역자 정영자 부임	김성재	<p>♠ 파월 장병에게 「새가정」 잡지 보내다            ♥ 군인복지관(새벽 5시, 일주간씩), 영락양로원(1972년까지)            12월 제8대 전도사 정영자 부임하다(1973년 4월 1일 사임)</p>
1969	특별집회(강사: 최화정 목사)	공덕귀	<p>여전도회를 연령별 4개 그룹으로 나눠 활동하다:            도르가반(60세 이상), 마리아반(50세 이상), 마르다반(40세 이상), 해바라기반(40세 미만)            여전도회 월례회를 셋째 주일 후 월요일에 열고 특강 순서를 가짐(1972년까지)            ♦ 청유부를 두고 교회 하층 유치원에 임시탁아소를 열어 주일예배 시 유아를 돌보다            ※ 6월 15일: 16일 (월) 친목 야유회 비원, 도시락 각자            ※ 7월 27일: 여전도회 헌신예배(설교: 여자신학교 교장 김혜라)            ♣ ※ 8월 31일: 진중리교회 이문규 전도사 입원            ♠ 9월 20일 제1회 선교바자회 개최            ※ 10월 19일: 20일 (월) 신양강좌 11~12시, 1:30, 2:30, 7~8시            ※ 11월 16일: 여전도회 임원회와 권찰 연설회 모임, 17일 (월) 여전도회 월례회 강사: 한신대강사 정운섭 목사. 가정에서의 청소년 신앙지도            ♣ 장현교회(매월 5,000원), 진중교회(5개월간), 흑산도 북교회            ♥ 수원교도소</p>
1970	주정현금제도 채택 고난주간 특별집회(강사: 이종성 목사, 전경연 목사, 이계준 목사, 김재준 목사)	공덕귀	<p>♥ 대방동 시립부녀보호소(매월 방문, 필수품 지원), 세브란스병원(매주 금요일, 1972년까지), 세브란스 병원 내 재활원, 의정부 교도소(연 1회)</p>

1972	안태인 원로장로 추대  	공덕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덕귀,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서울 연합회 회장에 선임되어 일본선교와 국내 산업선교와 버스 안내양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다</li> <li>♣ 경기도 양평군 무왕교회, KSCF(1년간 매월), 안양 나병환자 보호소</li> <li>♥ 연천 60사단 위문(2001년 현재까지 군 위문 계속), 7번 버스 안내양 위로회</li> </ul>
1973	제9대 담임목사 용재호 부임  제9대 여교역자 김경남 부임  부흥회(강사: 김종수 목사)	조화순	<p>5월 27일 제9대 목사 용재호 부임하다(1976년 5월 사임) 7월 제9대 전도사 김경남 부임하다(1996년 1월 7일 은퇴)</p> <p>♡ 교회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을 보고 매월 1일 구국기도회를 열어 기도하는 데 전력을 다하다(2014년 현재까지)</p> <p>♣ 도시 산업 선교회(1996년까지), 장미회, 은혜원(윤락여성)</p> <p>♣ 「새가정」 120부, 「한국기독공보」 240부를 군에 보내다</p>
1974	증경장로 소개	조화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덕귀,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전국 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다(1978년까지)</li> </ul> <p>8월 제직회에서 한찬호 정석원 추중엽 배보석 증경장로 네 분이 소개된다</p>
1975	예수를 바라보자  시무장로 전원이 용 목사의 사퇴 요구  협동장로 전원 사퇴  신양강좌(강사: 민경배 교수, 문동환 교수, 문희석 교수)	조화순	<p>1월 16일 김충선 이효종 김희선 등 시무장로 전원이 용 목사의 시무사직 의결</p> <p>3월 9일 한찬호 배보석 추중엽 정석원 협동장로 사퇴 인사 말씀</p> <p>4월 27일 일본, 장로로 피택되다</p> <p>10월 26일 당회장 용 목사가 일본 집사의 장로고시 청원을 거부함</p> <p>11월 18일 용재호 목사에 대한 시비로 묘동교회 박한 용 목사가 대리 당회장으로 당회를 사회하다</p>

## ¶ 주보에서 찾아본 여전도회 활동 (1970–1976)

범례: ●교회연합, ♥사회봉사, ♣보조, ♠선교, ★사회표창, ♡교회봉사, ☆교회기념

주보 일자	여전도회 관련 광고
1970. 1. 25	종회 및 월례회, 70년대를 맞아 금호동감리교회 최영기 목사 모심
1970. 3. 22	29일 예배 후 여전도회 실행위원회, 30일 월례회 복지사회 건설본부 강의 권찰 참석 요망
1970. 3. 29	30일 지역사회 본부장 오재경 씨, 이은숙 씨 환등기 상영과 강의
1970. 4. 12	● 16일 여전도회 서울시 연합회가 영락교회에서 개최
1970. 4. 26	27일 시청각 교육국 성극부
1970. 6. 28	♣ 29일 회의 후 세브란스 자활원 방문
1970. 11. 22	♡ 30일 크리스마스 맞아 선물 포장법 및 리본 매는 법 강습 꽃꽂이
1971. 2. 21	22일 이창식 목사, 노사 특별집회 준비
1971. 5. 2	3일 교회 여성 연합회, 연세대 권수표 교수 부정식품 공해문제 산업선교 이야기
1971. 5. 9	10일 변 권사 방문 겸 야유회, 점심 각자 준비
1971. 7. 25	김향숙 집사 꽃꽂이 강습함; 여전도회 실행위원회 모임
1971. 8. 29	● 안동교회 여전도회 공덕귀 회장 금번 전국 연합대회 부회장 당선
1972. 2. 27	실행위는 예배 후에 모임, 28일 월례회 마치고 분식 강습
1972. 4. 16	● 공덕귀 여전도회 회장, 서울시 연합 여전도회 회장으로 당선
1972. 5. 21	♥ 22일 영락 경로원 방문, 11시까지 경로원 도착 바람. 점심 각자 준비 장립집사 정경덕 씨 노환으로 14일 별세, 16일 장례
1972. 7. 30	31일 지도자 강습회 보고 강연, 생일축하와 추모예배도 겸함
1972. 8. 13	● 21일부터 전국 여전도 연합대회가 장로교신학대학에서 개최 많은 참석바람
1972. 11. 26	27일 오전10:30 월례회 특히 산업선교 수고하는 정양숙 선생 모심
1972. 12. 24	♥ 26일 연천 20사단 여전도회 대학생회 중고등부 합동 위문, 27일 여전도회 종회
1973. 1. 28	29일 월례회 강사 서울 연합회 조숙자 총무, 회의 후 식사와 오락 있음
1974. 5. 19	♥ 20일 여전도회 베다니 양로원 방문하며 거기서 월례회 가짐
1975. 4. 20	연세대 이길상 박사의 식품영양학 교양강좌
1975. 5. 11	♥ 12일 베다니 경로원 방문하며 10시 교회에서 출발
1975. 5. 18	오늘밤은 여전도회 헌신예배이며 강사는 연동교회 부목사이신 김종렬 목사(막 14:3–9 “값진 낭비”)
1975. 6. 22	● 6·25에 여전도회는 점심시간을 특별 급식 하기로 하였음

## ¶ 여전도회 역대 회장 (1948–1979)

no.	이름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8	김신복	—	—	—	—	—	—	—	—	—	—	통합3	통합4
9	오일영	—	—	—	—	—	—	—	—	—	—	—	—
10	유진경	—	—	—	—	—	—	—	—	—	—	—	—
11	김계수	통합1	통합2	통합3	—	—	—	—	—	—	—	—	—
12	이순정	—	—	—	통합1	—	—	—	—	—	—	—	—
13	안정완	—	—	—	—	통합1	통합2	—	—	—	—	—	—
14	공덕귀	—	—	—	—	—	—	통합1	통합2	—	—	—	—
15	윤경희	—	—	—	—	—	—	—	—	통합1	통합2	—	—
no.	이름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4	공덕귀	—	—	—	—	—	—	—	—	—	—	통합3	
15	윤경희	—	—	통합3	통합4	—	—	—	—	—	—	—	—
16	방순실	통합1	통합2	—	—	—	—	—	—	—	—	—	—
17	백정희	—	—	—	—	통합1	통합2	—	—	—	—	—	—
18	이현자	—	—	—	—	—	—	통합1	—	—	—	—	—
19	김성재	—	—	—	—	—	—	—	—	통합1	통합2	—	—
no.	이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4	공덕귀	통합4	통합5	통합6	—	—	—	—	—	—	—	—	—
15	윤경희	—	—	—	—	—	—	—	—	—	—	—	—
16	방순실	—	—	—	—	—	—	—	—	—	—	—	—
17	백정희	—	—	—	—	—	—	—	—	—	—	—	—
18	이현자	—	—	—	—	—	—	—	—	—	—	—	—
19	김성재	—	—	—	—	—	—	—	—	—	—	—	—
20	조화순	—	—	—	통합1	통합2	통합3	통합4	—	—	—	—	—
21	이삼득	—	—	—	—	—	—	—	통합1	통합2	—	—	—
22	이정숙	—	—	—	—	—	—	—	—	—	—	통합1	

※ 1. 'no.' 는 각 사람의 여전도회 역대 회장 명단 등재 고유번호로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2. '통합'은 각 지회로 나누어지기 전 즉 1980년 이전의 단일 여전도회를 표현한 것이다.

3. '통합' 및 각 지회 명칭 뒤의 숫자는 회장 역임 누적 회수를 뜻한다.

4. 칸이 진하게 표시된 경우는 최종 역임을 뜻한다.

## 3.2 교회를 섬긴 여성들 1 (1946–1973)

¶ 주일 당번 여제직 명단 (1946–1953)

1946. 4. 28	집사	정송자 유각경 문서혁 오현주 안 현 김계수 *남집사: 오종환 유병국 정경덕 노덕상 임병욱 한규복
1949	집사	윤경희 김신복 최노애 방순실 이병갑 김혜석 김정희 최덕행 오현주 유각경 문서혁 김계수 정성훈 문순복 이순정 김정묵 채기순 김신원 구신명 주월영 (한 주당 세 명씩)
1950. 1. 1–4. 9	집사	채기순 구신명 김정희 김정묵 이순정 최노애 김신복 윤경희 최덕행 김혜석 문순복 주월영 이병진 방순실 백정희 정성훈 김신원 (한 주당 세 명씩)
	권사	공덕귀 송귀옥 허영순 (4월 2일)
1953. 11–12	집사	최노애 윤경희 김신복 김신원 김혜석 백정희 채기순 송두옥 강자경 이순정 방순실 주월영 공덕귀 박계란

¶ 안동교회 역대 여성제직 명단 (1954–1963)

■ 전도사 ■ 권사 ■ 서리집사 ■ 명예권사

no.	입회	이름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계	재직 연도
1	1	박애순	1	1	0	0	0	0	1	1	1	1	6	1954
2	2	홍숙자	1	1	1	1	1	1	1	1	1	1	10	"
3	3	송정의	1	1	1	1	1	1	1	1	1	1	10	"
4	4	유진경	1	1	1	1	1	1	1	1	1	1	10	"
5	5	윤활란	1	1	1	1	1	1	1	1	1	1	10	"
6	6	허대은	1	1	1	1	1	1	1	1	1	1	10	"
7	7	정송자	1	1	1	1	1	1	1	1	1	1	10	"
8	8	유각경	1	1	1	1	1	1	1	1	1	1	10	"
9	9	오현주	1	1	1	1	1	1	1	1	1	1	10	"
10	10	문서혁	1	0	0	0	0	0	0	0	0	0	1	"
11	11	김계수	1	1	1	0	0	0	0	0	0	0	3	"

※ 1. 'no.'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no.	입회	이름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계	재직 년도
12	12	정성훈	1	1	1	0	0	0	0	0	0	0	3	1954
13	13	김신원	1	1	1	1	1	1	1	0	0	0	7	"
14	14	최노애	1	1	1	1	1	1	1	1	0	0	8	"
15	15	윤경희	1	1	1	1	1	1	1	1	1	1	10	"
16	16	김정묵	1	1	1	1	0	0	0	0	0	0	4	"
17	17	김신복	1	1	1	1	1	1	1	1	0	0	8	"
18	18	이순정	1	1	1	1	1	1	1	1	0	0	8	"
19	19	송두옥	1	0	0	0	0	0	0	0	0	0	1	"
20	20	구신명	1	1	1	1	1	1	1	1	0	0	8	"
21	21	채기순	1	1	1	1	0	0	0	0	0	0	4	"
22	22	문순복	1	1	1	0	0	0	0	0	0	0	3	"
23	23	방순실	1	1	1	1	1	1	1	1	1	1	10	"
24	24	공덕귀	1	1	1	1	1	1	1	1	0	0	8	"
25	25	김혜석	1	1	1	1	1	0	0	0	0	0	5	"
26	26	주월영	1	1	1	1	1	1	1	1	1	1	10	"
27	27	백정희	1	1	1	1	1	1	1	1	1	1	10	"
28	28	박계란	1	1	1	1	1	1	1	1	1	1	10	"
29	29	강자경	1	1	1	1	1	1	1	0	0	0	7	"
30	30	안정완		1	1	1	1	1	1	1	1	1	9	1955
31	31	황말선		1	1	1	1	1	1	1	0	0	7	"
32	32	엄지순		1	1	1	1	1	1	1	1	1	9	"
33	33	이학남		1	1	0	0	0	0	0	0	0	2	"
34	34	변영하			1	1	1	1	1	1	1	1	8	1956
35	35	윤경애				1	1	1	0	0	0	0	3	1957
36	36	최명열				1	1	1	1	1	0	0	5	"
37	37	김순식				1	1	1	1	1	1	1	7	"

※ 1. 'no.' 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no.	입회	이름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계	재직 년도
38	38	김남인				1	1	1	1	1	1	1	7	1957
39	39	이을남				1	1	1	1	1	1	1	7	" (이현자와 동일 인물)
40	40	차이화				1	1	1	1	1	1	1	7	"
41	41	최옥경					1	1	1	1	1	1	6	1958
42	42	서효애						1	1	1	1	1	5	1959
43	43	한중복						1	1	1	1	1	5	"
44	44	김순희						1	1	1	0	0	3	"
45	45	진현봉						1	0	0	0	0	1	"
46	46	김성재						1	1	1	1	1	5	"
47	47	박희성						1	0	0	0	0	1	"
48	48	이화자						1	1	1	1	1	5	"
49	49	이혜선						1	1	0	0	0	2	"
50	50	민정홍						1	1	1	1	1	5	"
51	51	조수재							1	1	1	1	4	1960–1961
52	52	윤명사							1	1	1	1	4	" (이범숙과 동일 인물)
53	53	황정연							1	1	1	1	4	"
54	54	김형숙							1	1	1	1	4	"
55	55	전신덕							1	1	0	0	2	"
56	56	손영숙							1	1	1	1	4	"
57	57	서금석							1	1	0	0	2	"
58	58	정화자							1	1	0	0	2	"
59	59	홍계문									1	1	2	1962–1963
60	60	최재숙									1	1	2	"
61	61	이인선									1	1	2	"
62	62	이삼득									1	1	2	"
63	63	홍유남									1	1	2	"
64	64	유현경									1	1	2	"
계			29	31	31	33	32	40	46	43	38	38	361	—

※ 1. 'no.'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 ¶ 안동교회 역대 여성제직 명단 (1964–1973)

■ 전도사 ■ 권사 ■ 서리집사 ■ 명예권사

no.	입회	이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계	재직 년도
1	1	박애순	1	1	0	0	0	0	0	0	0	0	2	1964
2	2	홍숙자	1	0	0	0	0	0	0	0	0	0	1	"
3	3	송정의	1	1	0	0	0	0	0	0	0	0	2	"
4	4	유진경	1	1	0	0	0	0	1	1	1	1	6	"
5	5	윤활란	1	1	0	0	0	0	0	0	0	0	2	"
6	6	허대은	1	0	0	0	0	0	0	0	0	0	1	"
7	7	정송자	1	1	0	0	0	0	0	0	0	0	2	"
8	8	유각경	1	1	0	0	0	0	0	0	0	0	2	"
9	9	오현주	1	1	0	0	0	0	1	1	1	1	6	"
10	14	최노애	0	0	1	1	1	1	1	1	1	1	8	"
11	15	윤경희	1	1	1	1	1	1	1	1	1	1	10	"
12	18	이순정	0	0	1	1	1	1	1	1	1	1	8	"
13	20	구신명	0	1	1	1	0	0	0	0	0	0	3	"
14	23	방순실	1	1	1	1	1	1	1	1	1	1	10	"
15	24	공덕귀	0	1	1	1	1	1	1	1	1	1	9	"
16	26	주월영	1	1	1	1	1	1	1	1	1	1	10	"
17	27	백정희	1	1	1	1	1	1	1	1	1	1	10	"
18	28	박계란	1	1	1	1	1	1	1	1	1	1	10	"
19	30	안정완	1	1	0	0	0	0	1	1	1	1	6	"
20	31	황말선	0	0	0	0	0	1	1	1	1	1	5	"
21	32	엄지순	1	1	1	1	1	1	1	1	1	1	10	"
22	34	변영하	1	1	0	0	0	0	1	1	1	1	6	"
23	37	김순식	1	1	1	1	1	1	1	1	1	1	10	"
24	38	김남인	1	1	1	1	1	1	1	1	1	1	10	"
25	39	이을남	1	1	1	1	1	1	1	1	1	1	10	" (이현자와 동일 인물)
26	40	차이화	1	1	1	1	1	1	1	1	1	1	10	"
27	41	최옥경	1	1	0	0	0	0	1	1	0	0	4	"

※ 1. 'no.'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no.	입회	이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계	재직 년도
28	42	서효애	1	1	1	1	1	1	1	1	1	1	10	1964
29	43	한중복	1	0	1	0	0	0	0	0	0	0	2	"
30	46	김성재	1	1	1	1	1	1	1	1	0	1	9	"
31	47	박희성	0	1	1	1	1	1	1	1	1	1	9	"
32	48	이화자	1	1	1	1	1	1	1	1	1	1	10	"
33	49	이혜선	0	0	0	0	1	1	1	1	0	0	4	"
34	50	민정홍	1	1	1	0	0	0	0	0	0	0	3	"
35	51	조수재	1	1	1	1	1	1	1	1	0	0	8	"
36	52	윤명사	1	1	0	0	0	0	0	0	0	0	2	" (이범숙과 동일 인물)
37	53	황정연	1	1	0	0	0	0	1	0	0	0	3	"
38	54	김형숙	1	1	1	1	1	1	1	1	1	1	10	"
39	56	손영숙	1	1	1	0	0	1	1	1	1	1	8	"
40	58	정화자	0	1	1	1	1	1	1	1	0	1	8	"
41	59	홍계문	1	0	0	0	0	0	0	0	0	0	1	"
42	60	최재숙	1	1	1	1	1	1	1	1	1	1	10	"
43	61	이인선	1	1	0	0	0	0	0	0	0	0	2	"
44	62	이삼득	1	1	1	1	1	1	1	1	1	1	10	"
45	63	홍유남	1	1	1	1	1	1	1	1	1	1	10	"
46	64	유현경	1	1	1	1	1	1	1	1	1	1	10	"
47	65	홍경희		1	1	1	1	1	1	1	1	1	9	1965
48	66	이혜영		1	1	1	1	1	1	1	0	1	8	"
49	67	김민동		1	1	1	1	1	1	1	1	1	9	"
50	68	김수천		1	1	1	1	1	1	1	1	1	9	"
51	69	신정숙		1	1	1	1	1	0	0	0	0	5	"
52	70	유정자		1	0	0	0	0	0	0	0	0	1	"
53	71	안권선		1	0	0	1	1	1	1	1	1	7	"
54	72	장계순		1	1	1	1	1	1	1	0	0	7	"
55	73	유연준		1	1	1	1	1	1	1	1	1	9	"
56	74	조복순		1	1	1	1	1	1	1	0	0	7	"

※ 1. 'no.' 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no.	입회	이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계	재직 연도
57	75	박상순		1	1	1	1	1	1	1	1	1	9	1965
58	76	강자영		1	1	1	1	1	1	1	1	1	9	"
59	77	박숙란		1	1	1	1	1	1	1	1	1	9	"
60	78	유임선		1	1	1	1	1	1	1	0	0	7	"
61	79	조정석			1	1	1	1	1	1	1	1	8	1966
62	80	이윤돌			1	1	1	1	1	1	1	1	8	"
63	81	김금덕			1	1	0	0	0	0	0	0	2	"
64	82	김순애			1	1	1	1	1	1	1	1	8	"
65	83	김혜경			1	1	0	0	0	0	0	0	2	"
66	84	김남금			1	1	0	1	1	1	1	1	7	"
67	85	박인숙			1	0	0	1	1	1	1	1	6	"
68	86	박금옥			1	1	1	1	1	1	1	1	8	"
69	87	허정			1	1	1	1	1	1	0	0	6	"
70	88	김정자			1	1	1	1	1	1	1	1	8	"
71	89	이태경			1	1	1	1	1	1	0	0	6	"
72	90	강혜순				1	1	1	0	0	0	0	3	1967
73	91	장경희				1	1	1	1	1	1	1	7	"
74	92	이경숙				1	1	1	0	0	0	0	3	"
75	93	구후남				1	1	1	1	1	0	0	5	"
76	94	조화순				1	1	1	1	1	1	1	7	"
77	95	이신영				1	1	1	1	1	1	1	7	"
78	96	오정숙				1	1	1	1	1	1	1	7	"
79	97	김도신				1	1	1	1	1	1	1	7	"
80	98	조성녀				1	1	1	1	1	1	1	7	"
81	99	박승옥				1	1	1	0	0	0	0	3	"
82	100	민기숙				1	1	1	1	0	0	0	4	"
83	101	이선숙				1	1	1	1	1	1	1	7	"
84	102	유옥근				1	1	1	1	1	1	1	7	"
85	103	김용윤				1	1	1	1	0	0	0	4	"

※ 1. 'no.' 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no.	입회	이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계	재직 연도
86	104	이근희				1	1	1	1	1	1	1	7	1967
87	105	김정순				1	1	1	1	1	1	1	7	"
88	106	정화성				1	1	1	1	1	1	1	7	"
89	107	이정숙				1	1	1	1	1	1	1	7	"
90	108	윤경남				1	1	1	1	1	1	1	7	"
91	109	이주영				1	1	1	1	1	1	1	7	"
92	110	이종선				1	1	1	1	0	0	0	4	"
93	111	이강옥				1	1	1	1	1	1	1	7	"
94	112	황재은				1	1	1	1	1	1	1	7	"
95	113	박숙녀				1	1	1	1	1	0	1	5	1968
96	114	장은전				1	1	1	0	0	0	0	3	"
97	115	주영자				1	1	1	1	1	1	1	6	"
98	116	계성순				1	1	1	1	0	0	0	4	"
99	117	지혜숙				1	1	1	1	1	1	1	6	"
100	118	장옥희				1	1	0	0	0	0	0	2	"
101	119	이명숙				1	1	1	1	1	1	1	6	"
102	120	박영옥				1	1	1	0	0	0	0	3	"
103	121	김동애				1	1	1	1	1	1	1	6	"
104	122	서정남				1	1	1	1	1	1	1	6	"
105	123	정영자				1	1	1	1	1	1	1	5	1969
106	124	박금순				1	1	1	1	1	1	1	5	"
107	125	김은조				1	1	1	1	1	1	1	5	"
108	126	이인보				1	1	1	1	1	1	1	5	"
109	127	김효숙				1	1	1	1	1	1	1	5	"
110	128	최병희				1	1	0	0	0	1	3	"	
111	129	한선흐				1	1	1	1	1	1	1	5	"
112	130	조계숙				1	1	1	1	1	1	1	5	"
113	131	이혜정				1	1	1	1	1	1	1	5	" (이혜경과 동일 인물)
114	132	이용하				1	1	1	1	1	1	1	5	"

※ 1. 'no.' 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no.	입회	이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계	재직 년도
115	133	이기화						1	1	1	0	0	3	1969
116	134	박종환						1	1	1	1	1	5	"
117	135	이복향						1	1	1	1	1	5	"
118	136	안지순						1	0	0	0	0	1	"
119	137	조순복						1	1	1	1	1	5	"
120	138	김영한						1	1	1	1	1	5	" (김영환과 동일 인물)
121	139	윤정순						1	1	1	1	1	5	"
122	140	한영순						1	0	0	0	0	1	"
123	141	김효수						1	1	1	1	1	5	"
124	142	백옥경							1	1	1	1	4	1970
125	143	김복실							1	1	1	1	4	"
126	144	최아지							1	1	1	1	4	"
127	145	윤예경							1	0	0	1	2	"
128	146	민혜린							1	1	1	1	4	"
129	147	김향숙							1	1	1	1	4	"
130	148	박영하							1	1	1	1	4	"
131	149	김경진							1	1	0	0	2	"
132	150	한을석							1	1	1	1	4	"
133	151	유순정							1	0	0	0	1	"
134	152	신경희							1	1	1	1	4	"
135	153	김희진							1	1	1	1	4	"
136	154	하봉태								1	1	1	3	1971~1972
137	155	원종옥								1	1	1	3	"
138	156	문소영										1	1	1973
139	157	김선복										1	1	"
140	158	김일진										1	1	"
141	159	장용희										1	1	"
계			38	52	51	70	78	101	112	105	89	99	795	-

※ 1. 'no.'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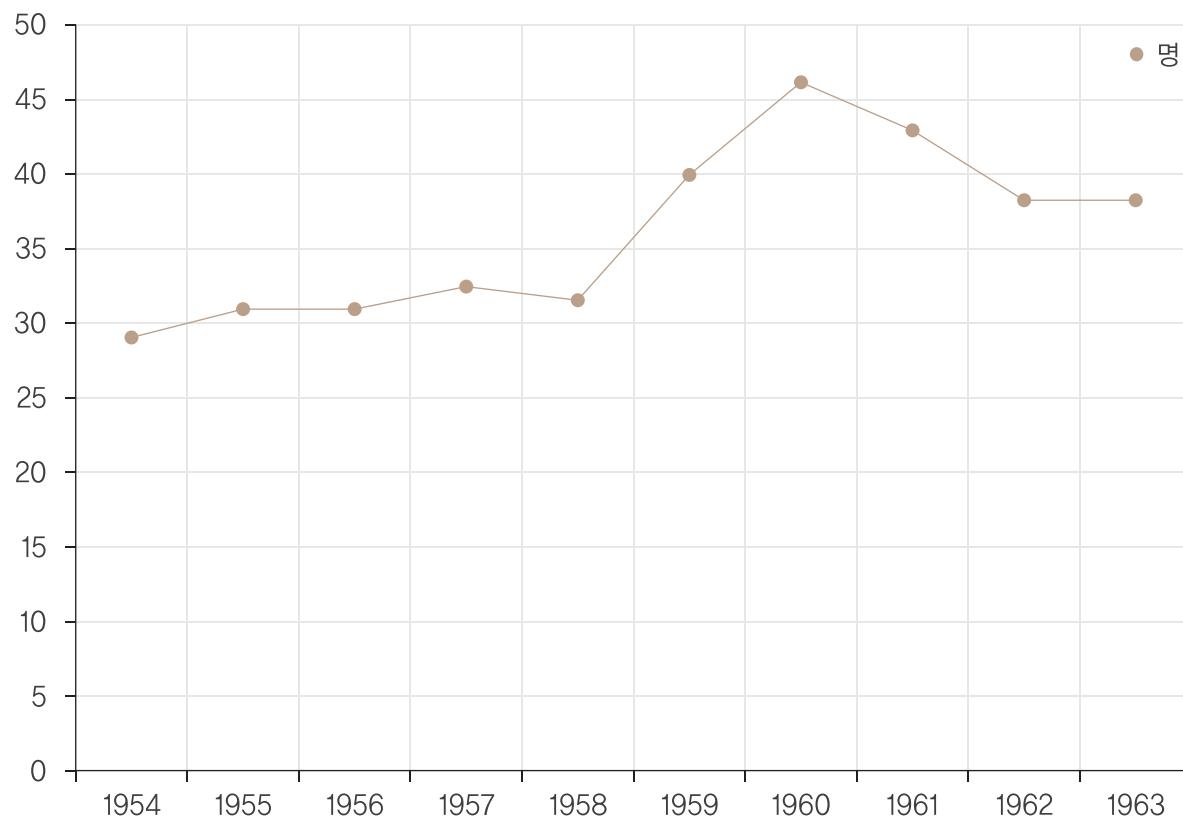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 ¶ 여성제직 증감표 (1954–1963)

(단위: 명)

구분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평균
교역자	1	1	0	1	1	1	1	1	1	1	0.90
권사	10	10	11	10	11	11	14	14	14	14	11.90
서리집사	18	20	20	22	20	28	31	28	23	23	23.30
전체	29	31	31	33	32	40	46	43	38	38	3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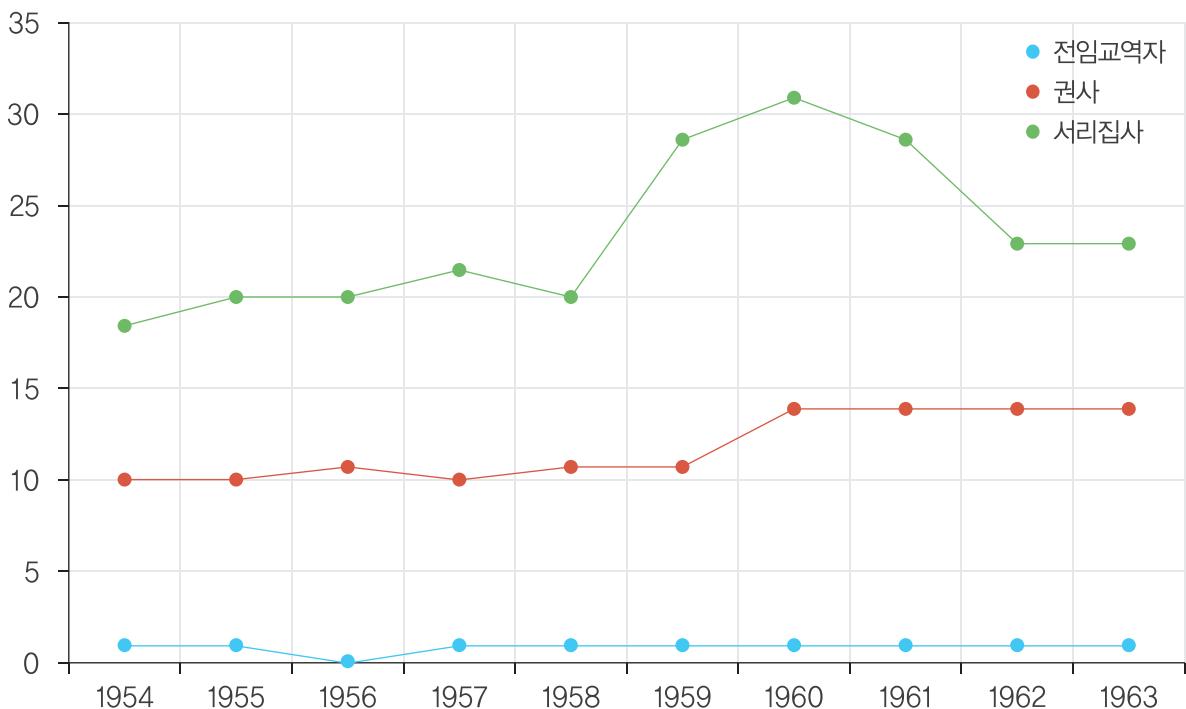
## # 여성제직 추세 (1954–1963)



### 여성제직 추세 (1954–1963)

1958년과 1960년 사이의 제직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역사를 되돌아보고 옛 교우를 찾으며 교적 등을 다시 정비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담임목사 이금식 제7대 목사, 여전도 회장 김신복 방순실.

## # 여성제직 직분별 추이 (1954–1963)



### 여성제직 직분별 추이 (1954–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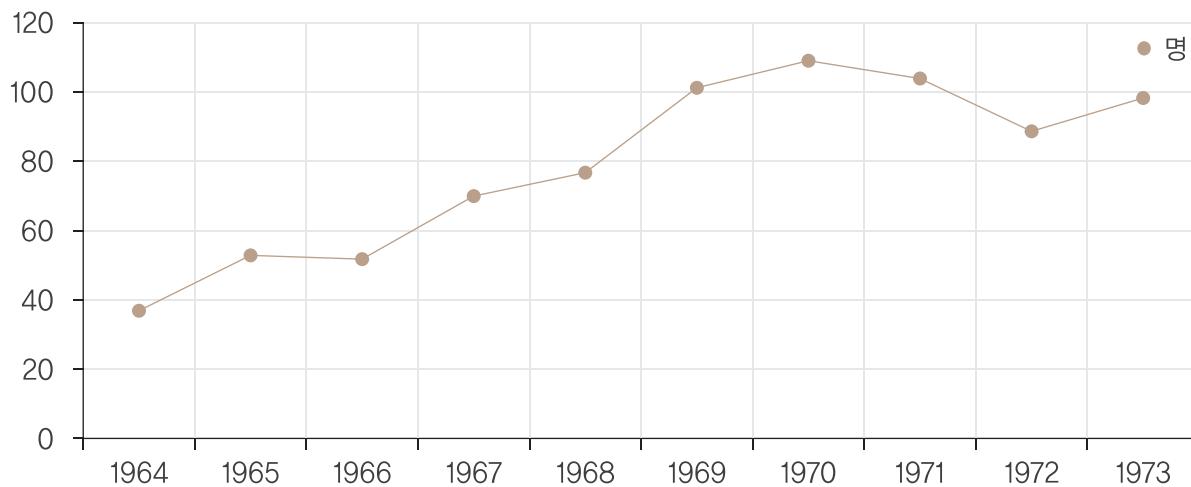
위의 도표에서 서리집사의 경우 1961년과 1962년 사이의 급격한 감소가 눈에 띈다. 그 배경은 이렇다. 우리 교회가 예장과 기장 사이에서 소속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는 가운데 1961년 12월 31일 '62년도 서리집사를 선출하기 위한 공동의회가 모였다. 남자 19명, 여자 47명 후보자 명단을 배부하고 164명이 투표했는데 무효표 4표가 나왔고 과반수인 80표 이상을 받은 서리집사는 남자 13명, 여자 23명이었다. 기장 소속을 주장했던 사람들 이 대부분 투표에서 탈락한 것이다. 남자 후보 중에 최현식 전태기 이용관 김충기 등이 탈락되었고 여자 후보 중에서는 공덕귀 이순정 김신복 구신명 등이 탈락되었다. (교단 소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교회 분쟁의 배경에 대해서는 『안동교회 90년사』, 201–225 참조)

## P 여성제직 증감표 (1964–1973)

(단위: 명)

구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평균
교역자	1	1	1	1	1	2	2	2	1	1	1.30
권사	14	12	7	7	7	23	23	24	21	20	15.80
명예권사	—	—	—	—	—	—	13	12	12	17	13.50
서리집사	23	39	43	62	70	76	74	67	55	61	57.00
전체	38	52	51	70	78	101	112	105	89	99	7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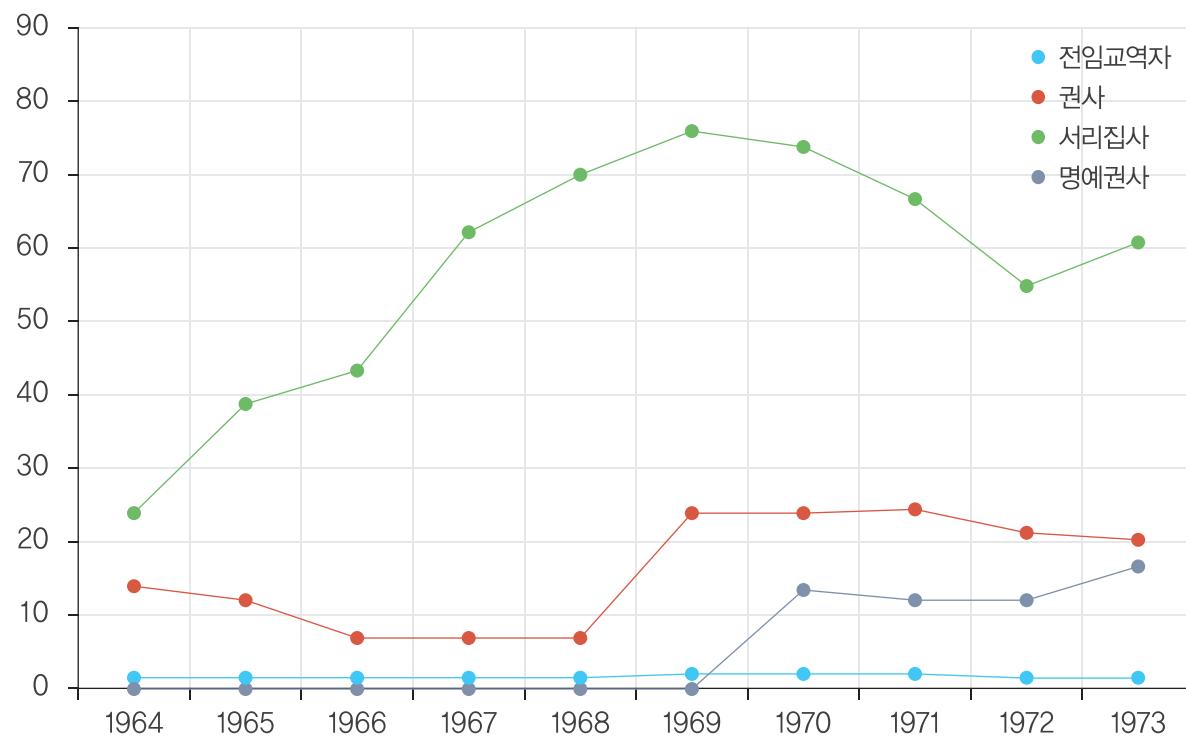
## # 여성제직 추세 (1964–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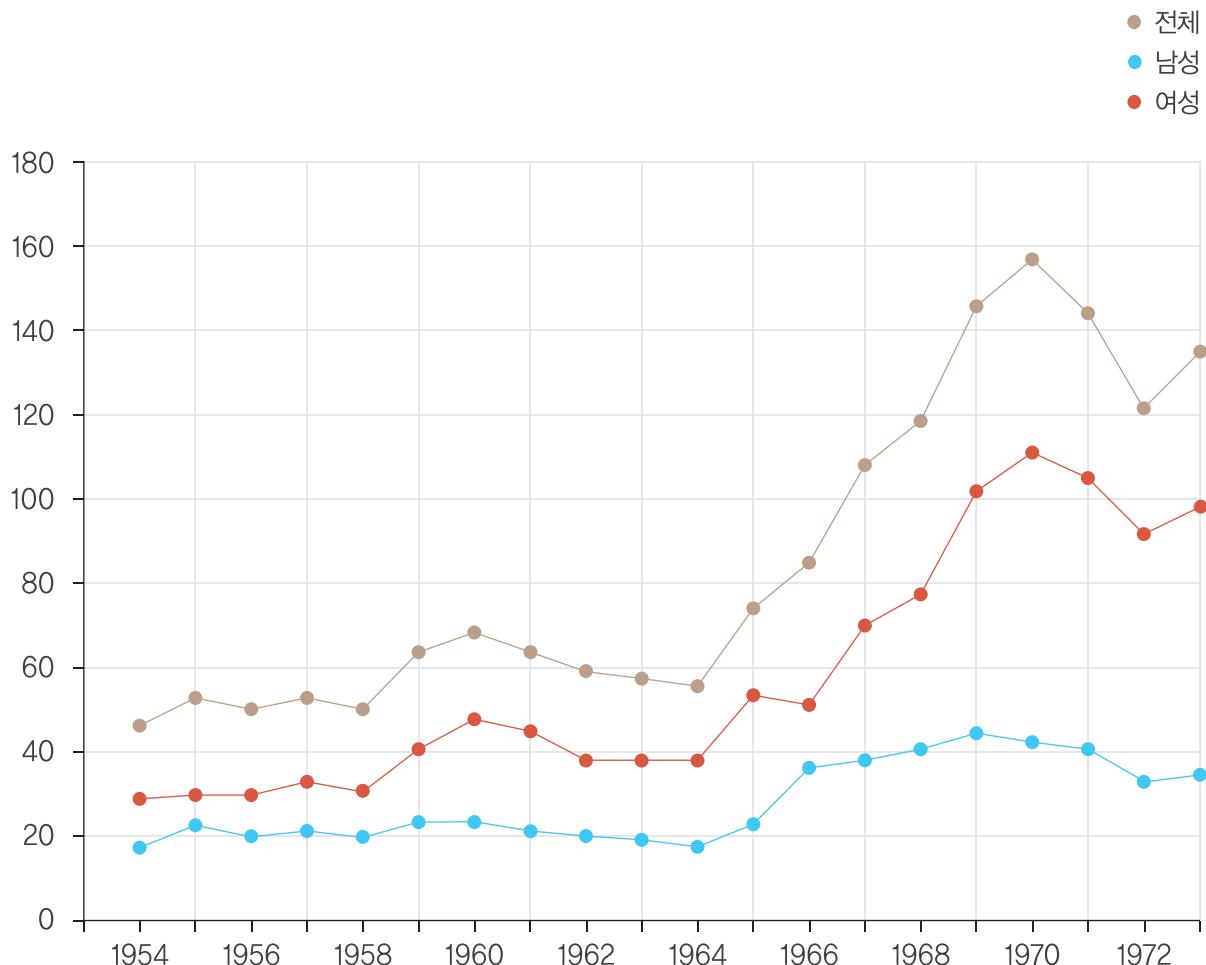
### 여성제직 추세 (1964–1973)

1968년과 1970년 사이의 제직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 역시 50주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창립 60주년을 맞아 역사를 되돌아보고 옛 교우를 찾으며 교적 등을 다시 정비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담임목사 오덕유 제8대 목사. 실제로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과 60주년에 각각 〈안동교회 약사〉를 발간하여 교회 재정비에 노력을 기울여갔다.

## # 여성제직 직분별 추이 (1964–1973)



## # 제직 추세 (1954–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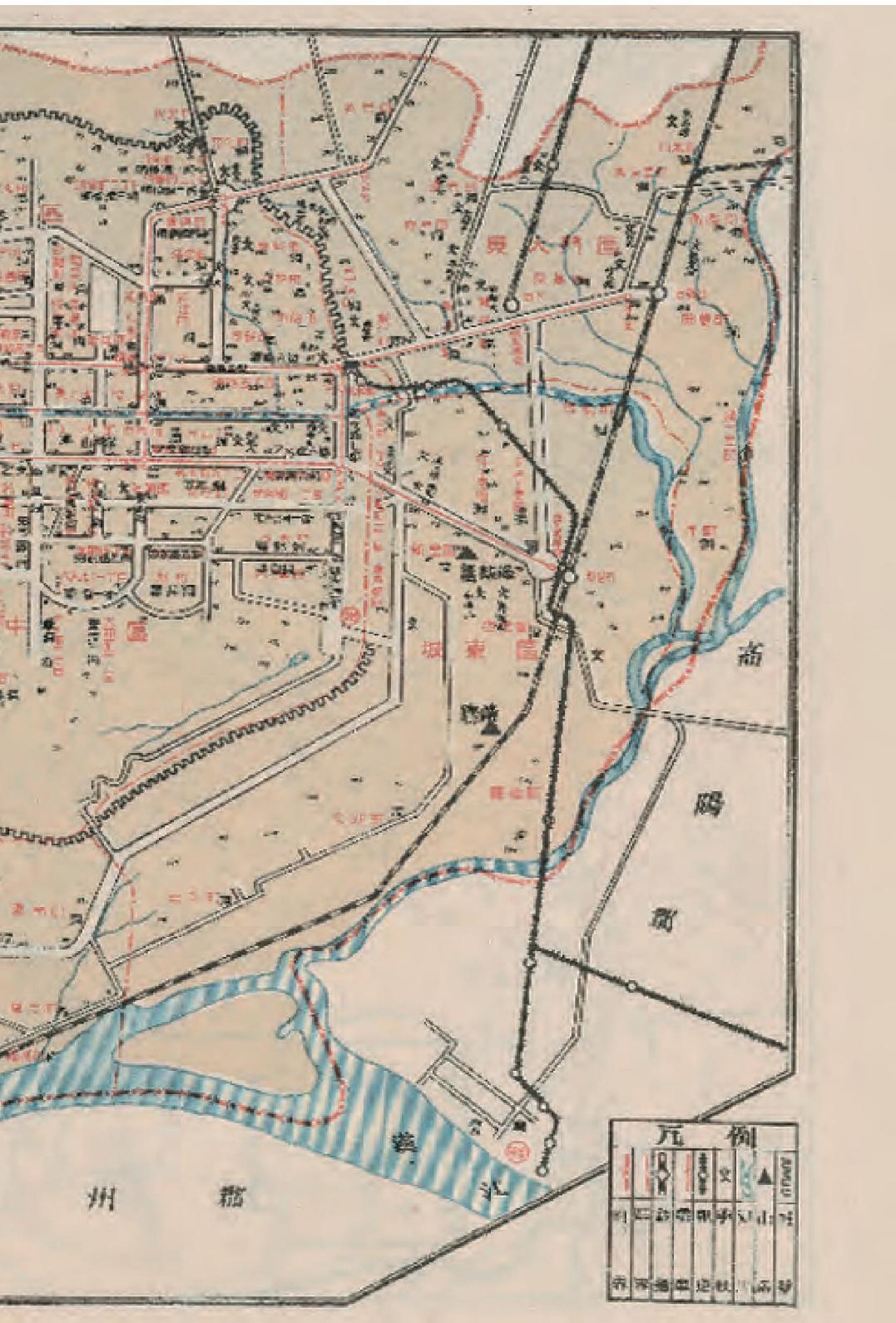
### 제직 추세 (1954–1973)

교회가 기장과 예장의 분열 문제로 시달리던 전반 10년 남성제직 증감의 추이가 여성제직보다 상대적으로 뚜렷하다. 이것은 교회의 위기 상황에서 여성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켜냈음을 반증한다. 그리고 이 시기 교회 전체의 추세가 남성제직의 기울기와 비례했던 사실은 교회의 어려웠던 형편을 반영한다.

반면 후반 10년은 여성제직의 증감 변동 폭이 커던 반면 남성제직은 완만한 증감을 보였다. 그리고 이 시기 교회 전체의 추세가 여성제직의 기울기와 비례했다. 이것은 변화된 교회 상황의 전개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3.3 6·25사변을 전후한 구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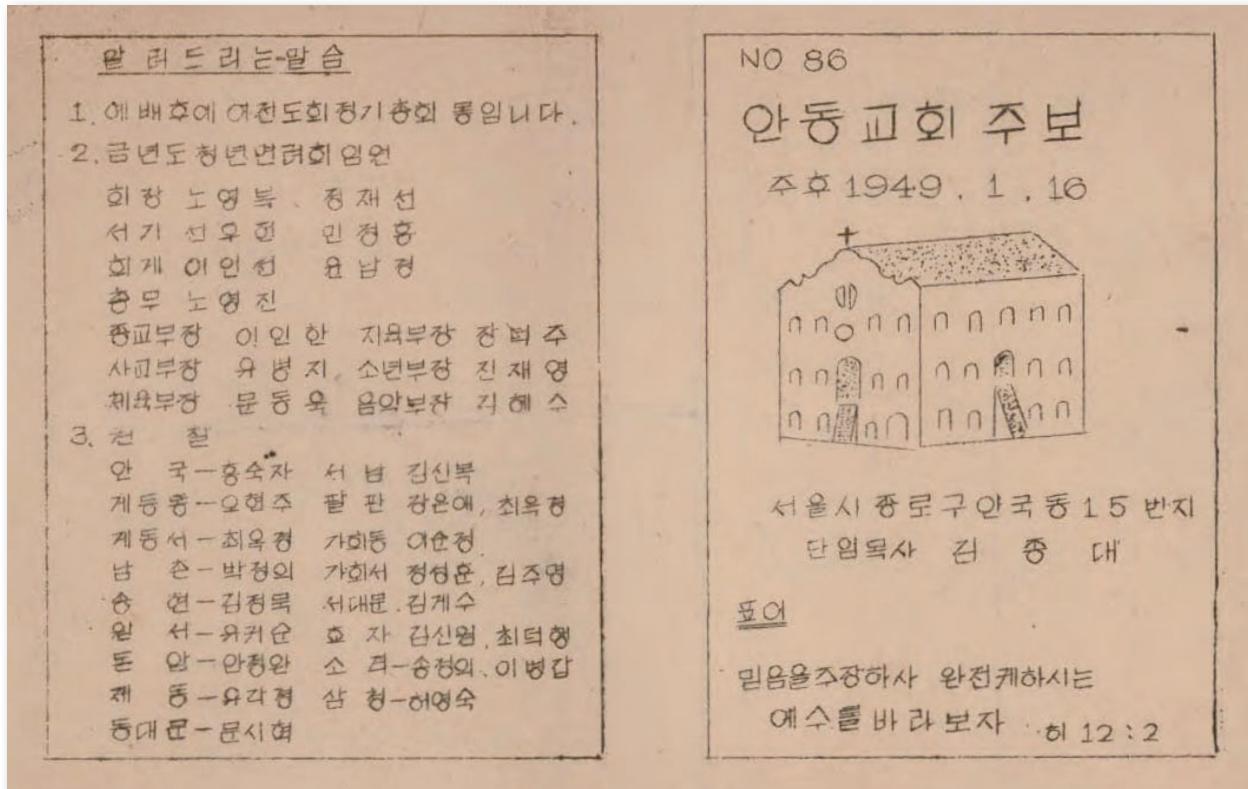


서울지도 (1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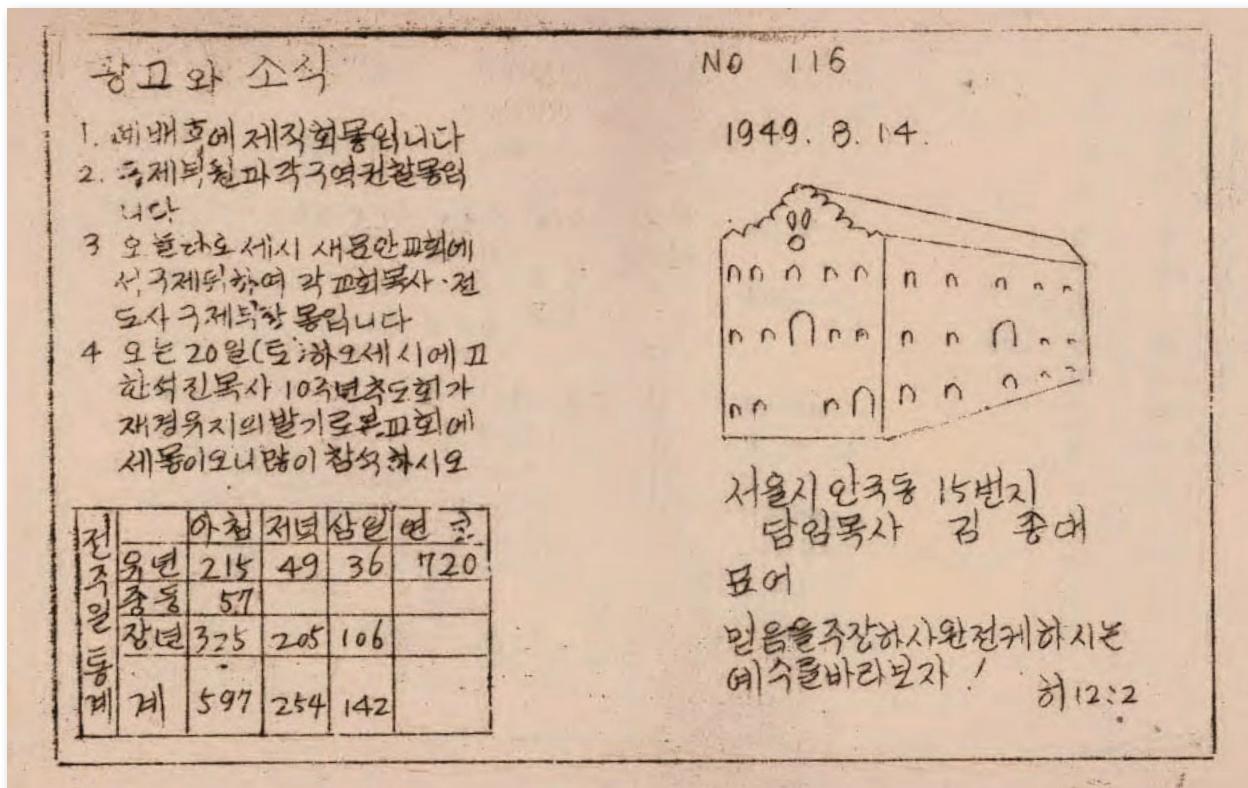
보물 서880,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 구역과 담당제직 명단 (1949–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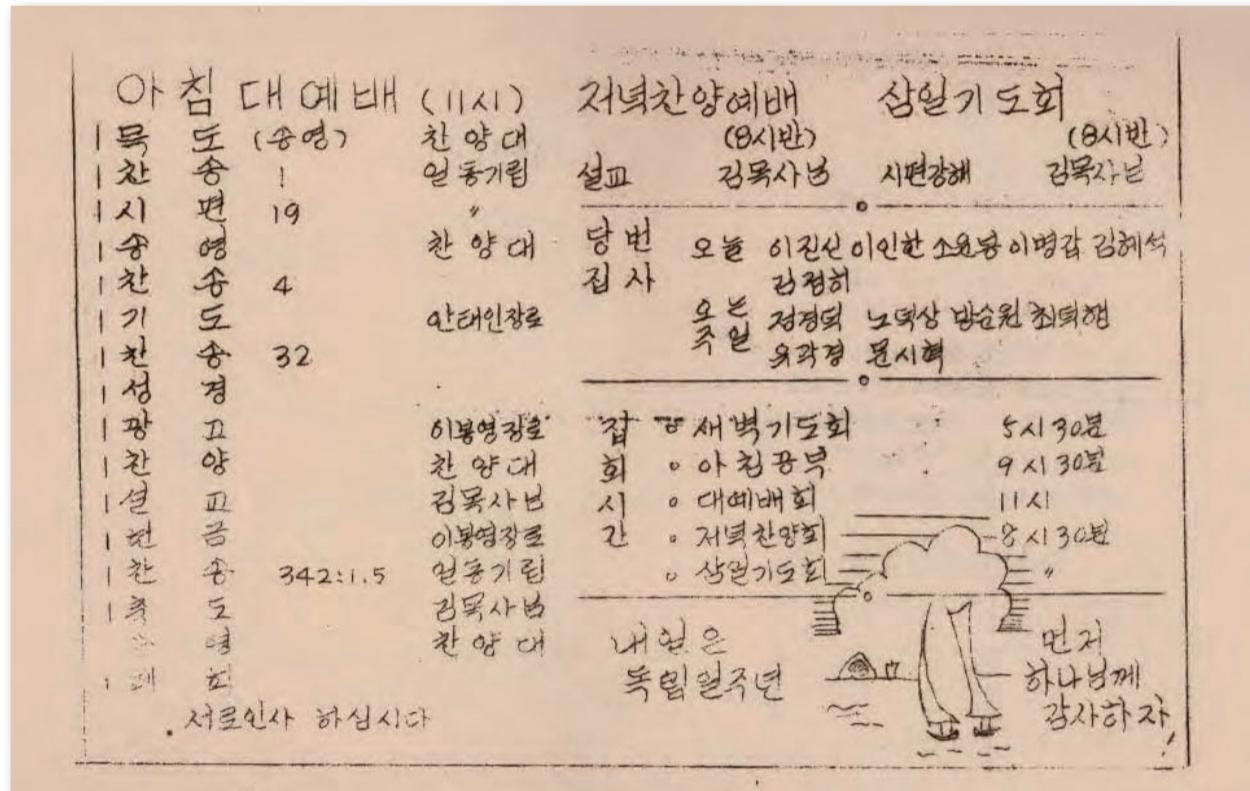
1949 구역: 17 권찰: 21	구역	안국	계동 동	계동 서	남촌	송현	원서	돈암	재동
	권찰	홍숙자	오현주	최옥경	박정의	김정묵	유귀순	안정완	유각경
	구역	동대문	서남	팔판	가회 동	가회 서	서대문	효자	소격
	권찰	문서혁	김신복	강은애 최옥경	이순정	정성훈 김주명	김계수	김신원 최덕행	송정의 이병갑
	구역	삼청	-						
	권찰	허영숙							
1953 추기 대심방 구역	관훈동 일대		관철, 회현, 주자동 일대		구삼청, 팔판, 계동 일부		효자, 청운동 일대		
	권찰	박정희	권찰	최노애	권찰	이정복	권찰	김신원	
	장로	이선일 장일섭	장로	안태인 백지엽	장로	오종환 이필현	장로	이선일 안태인	
	권사	유각경	권사	오현주	권사	유진경	권사	허대은 송정의	
	여집사	김혜석	여집사	주월영	여집사	백정희	여집사	이순정	
	용산구 일대		삼청동		마포, 서대문 구역		명윤, 돈암 구역		
	권찰	황말선	권찰	장영신	권찰	김계수	권찰	안정완	
	장로	백지엽 이필현	장로	백지엽 장일섭	장로	이선일 장일섭	장로	이필현 이선일	
	권사	정송자	권사	송정의	권사	정송자	권사	유진경	
	여집사	강자경	여집사	구신명	여집사	방순실	여집사	김신원	
동대문 구역	동대문 구역		가회동 서부	권찰 명단 (12월 13일 주보)					
	권찰	정성훈		김은조 송두옥 서금석 김형숙 정성훈 방순실 송두윤 임동순 박정희 황말선 김주경 최옥경 윤상순 강자경 김신원 이형남 최명열 장영신					
	장로	백지엽 안태인		김계수 오현주 백정희 이정복 안정완 서성실 송정의 엄지순					
	권사	오현주	청량리						
	여집사	최노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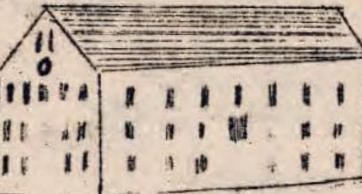
구역별 권찰 명단 (1949년 1월 16일자 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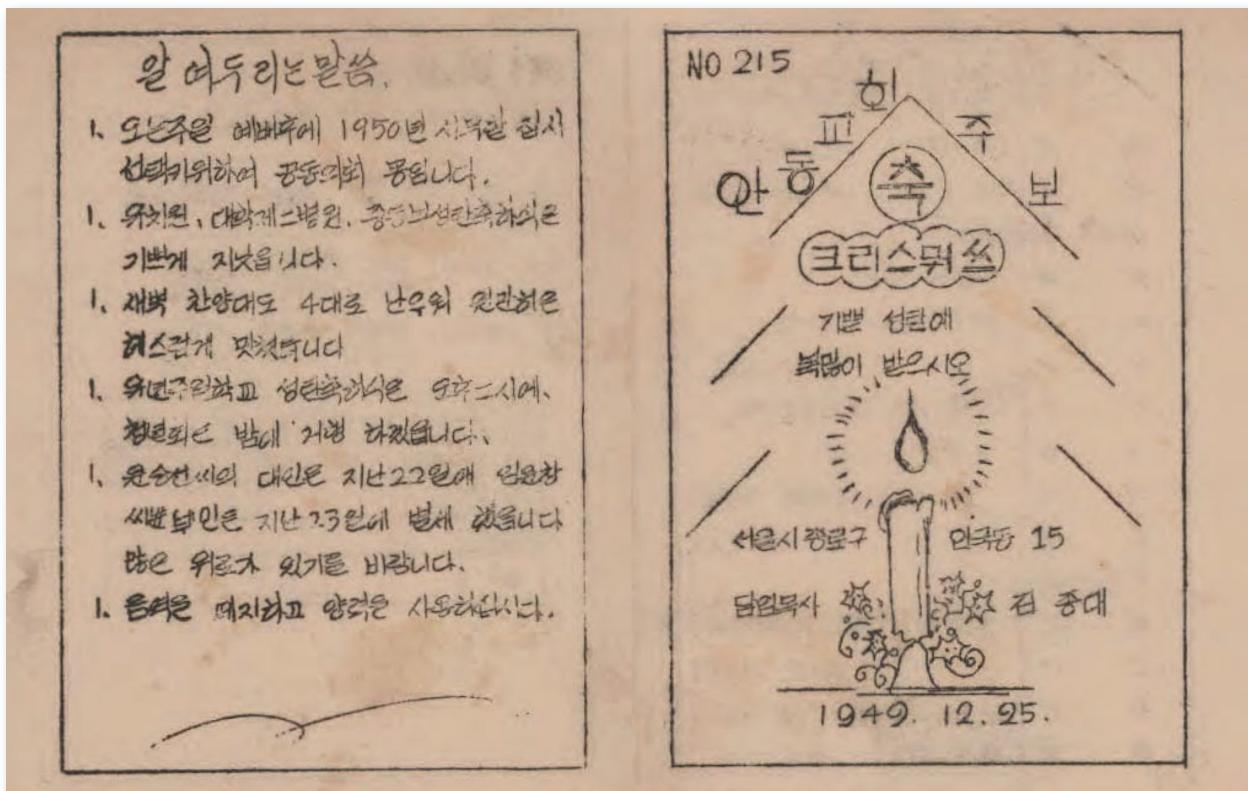
서울 시내교회의 연합사업 (1949년 8월 14일자 주보 앞면)



독립 1주년 기념 (1949년 8월 14일자 주보 뒷면)

<b>광고 속</b>	교회내외소식 드록사는 아니 전도사님께 알려주시오.																					
1. 예배후 당회물이 있읍니다. 2. 예배후 여전도회 월례회물입니다. 3. 오늘 저녁예배는 여전도회 예배도 많이 출석하십시오 4. 내일(15일) 여전도회에서 시연회 회와 함께 삼성공원으로 축수감사 간야의 간친회로 가고나 정답: 드리하시 고 한분도 빠짐없이 9시까지 교회로 몸 이서 갑이: 시기 바랍니다.																						
<u>추기대심방</u>																						
1. 계동 (원) 치은, 친오현주 - 이봉영장로 2. 원사 빠, 운차순 - 안태인 3. 남촌 구, 박정희 - 이인일 4. 호자 금, 김신원회회장 - 장길선 5. 서대문회 김기수 - 백기엽 6. 밤예배에 많이 출석하십시오.																						
<b>No 205</b> <b>서울 안동교회 주보</b>																						
<b>주회시간</b>	11월 16일																					
																						
서. 시광로구 안국동 15 담임목사 김종대																						
<table border="1"> <thead> <tr> <th>주</th> <th>새별기도회</th> <th>6시</th> </tr> </thead> <tbody> <tr> <td>일</td> <td>주일학교 어린이</td> <td>9시30분</td> </tr> <tr> <td></td> <td>중등</td> <td>10시</td> </tr> <tr> <td></td> <td>장년</td> <td></td> </tr> <tr> <td>회</td> <td>◦ 이침대예배</td> <td>11시</td> </tr> <tr> <td>시</td> <td>◦ 저녁찬양회</td> <td>7시</td> </tr> <tr> <td>간</td> <td>◦ 삼일기도회</td> <td>"</td> </tr> </tbody> </table>		주	새별기도회	6시	일	주일학교 어린이	9시30분		중등	10시		장년		회	◦ 이침대예배	11시	시	◦ 저녁찬양회	7시	간	◦ 삼일기도회	"
주	새별기도회	6시																				
일	주일학교 어린이	9시30분																				
	중등	10시																				
	장년																					
회	◦ 이침대예배	11시																				
시	◦ 저녁찬양회	7시																				
간	◦ 삼일기도회	"																				
◎ 물어기를 말씀시다																						

추기 대심방 일정과 여전도회 연합 간친회 광고 (1949년 10월 16일자 주보)



양력사용을 권고하다 (1949년 12월 25일자 주보 앞면)

<p><b>아침성단축하예배</b></p> <table border="0"> <tr> <td>목</td> <td>도 (주 악)</td> <td>소 양</td> <td>(11시)</td> </tr> <tr> <td>찬</td> <td>송 「1장 만복의 일통 기름</td> <td></td> <td></td> </tr> <tr> <td>기</td> <td>도</td> <td>이신령 창로님</td> <td></td> </tr> <tr> <td>찬</td> <td>송 「65장 우리구주나신분」</td> <td></td> <td></td> </tr> <tr> <td>성</td> <td>도</td> <td>이신령 창로님</td> <td></td> </tr> <tr> <td>광</td> <td>고</td> <td>이봉현 창로님</td> <td></td> </tr> <tr> <td>찬</td> <td>양</td> <td>찬 양 대</td> <td></td> </tr> <tr> <td>목아세례</td> <td></td> <td></td> <td></td> </tr> <tr> <td>설</td> <td>피 「성단의 기쁨」</td> <td>김복사님</td> <td></td> </tr> <tr> <td>전</td> <td>금</td> <td>이 창로님</td> <td></td> </tr> <tr> <td>찬</td> <td>송 「342빛나고높은 일동기쁨</td> <td></td> <td></td> </tr> <tr> <td>축</td> <td>도 (송영 폐회)</td> <td>김복사님</td> <td></td> </tr> </table>	목	도 (주 악)	소 양	(11시)	찬	송 「1장 만복의 일통 기름			기	도	이신령 창로님		찬	송 「65장 우리구주나신분」			성	도	이신령 창로님		광	고	이봉현 창로님		찬	양	찬 양 대		목아세례				설	피 「성단의 기쁨」	김복사님		전	금	이 창로님		찬	송 「342빛나고높은 일동기쁨			축	도 (송영 폐회)	김복사님		<p><b>저녁예배</b> 청년회 주최 성단축하예배 (7시)</p> <p><b>삼월기도회 혈교 김복사님</b></p> <p>(당) 창로님 &lt; 남반 백지열, 이필현 여반 안태현, 이봉현</p> <p>(번) 절차님 &lt; 김병록, 이규왕, 이진신 이준경, 구진명, 채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난주일 통계</th> <th>아침</th> <th>저녁</th> <th>삼월</th> <th>연 보</th> </tr> </thead> <tbody> <tr> <td>유년</td> <td>331</td> <td>151</td> <td>149</td> <td>1060.00</td> </tr> <tr> <td>중등</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장년</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계</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지난주일 통계	아침	저녁	삼월	연 보	유년	331	151	149	1060.00	중등					장년					계				
목	도 (주 악)	소 양	(11시)																																																																							
찬	송 「1장 만복의 일통 기름																																																																									
기	도	이신령 창로님																																																																								
찬	송 「65장 우리구주나신분」																																																																									
성	도	이신령 창로님																																																																								
광	고	이봉현 창로님																																																																								
찬	양	찬 양 대																																																																								
목아세례																																																																										
설	피 「성단의 기쁨」	김복사님																																																																								
전	금	이 창로님																																																																								
찬	송 「342빛나고높은 일동기쁨																																																																									
축	도 (송영 폐회)	김복사님																																																																								
지난주일 통계	아침	저녁	삼월	연 보																																																																						
유년	331	151	149	1060.00																																																																						
중등																																																																										
장년																																																																										
계																																																																										

성탄주일 예배순서 (1949년 12월 25일자 주보 뒷면)

**알여드리는 말씀**

- 오늘밤에 배는 청년회 회신에 배입니다.
- 오늘부터 만국교회기도회 주간이오니 새벽6시에 나오어서 자개인파 교회와 국가를 위하여 기도식 바랍니다.
- 예배후에 담회 동입니다.
- 청년회 정기총회를 오는주말 예배후에 동합니다.
- 관련집사님은 자개인파 대단히 위독하오니 위하여 특별한 기도를 원합니다.
- 장판금파 사업분은 전도사업계 250원 배가 운동 --- 각 교육단체와 함께 양으로 교회 출석 배가, 유년주교, 중등부: 청년회, 부인회, 전도대 --- 모두 충동한 배가, **기도할시다** 전도할시다) 교회 운동 배가 할시다. **음악할시다**

NO 216  
1950. 1. 1.  
**안동교회주보**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5  
담임목사 김종대

---

표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마태 6:33)

교회 배가 운동 광고 (1950년 1월 1일자 주보)

(②) 아 되는 말씀

○ 관목사업은 교통교회 옥 목사의 의뢰  
특별판례로 예배로시켜 가시았습니다.  
후 초기 대신방 내주로 정  
월 --- 관호동, 문어 ---  
(전철) 박정희(장노) 이선율, 강일섭  
(전사) 유희경(김서) 김태기  
화 --- 관문화면, 후자동, 양어 ---  
(전철) 최도기(장노) 관태근, 백지영  
(전사) 오현주(김서) 주철영  
복 --- 구송천, 팔관, 계동, 운부 ---  
(전철) 이정복(장노) 유흥호, 이필현  
(전사) 유희경(김서) 이정희  
금 --- 흐자, 천운동, 문어 ---  
(전철) 김선원(장노) 이선율, 유희경  
(전사) 이대인, 증정의(김서) 이순정  
토 --- 용산구 양어 ---  
(전철) 황윤선(장노) 박기문, 이길현  
(전사) 정승자(김서) 강자경

자단 주로 투자			
출처	남	여	합
주일예배	129	243	372
중등부	38	41	79
유년부	113	163	276
합계	280	447	727
			₩ 20,501

수록 제1호 1953년 1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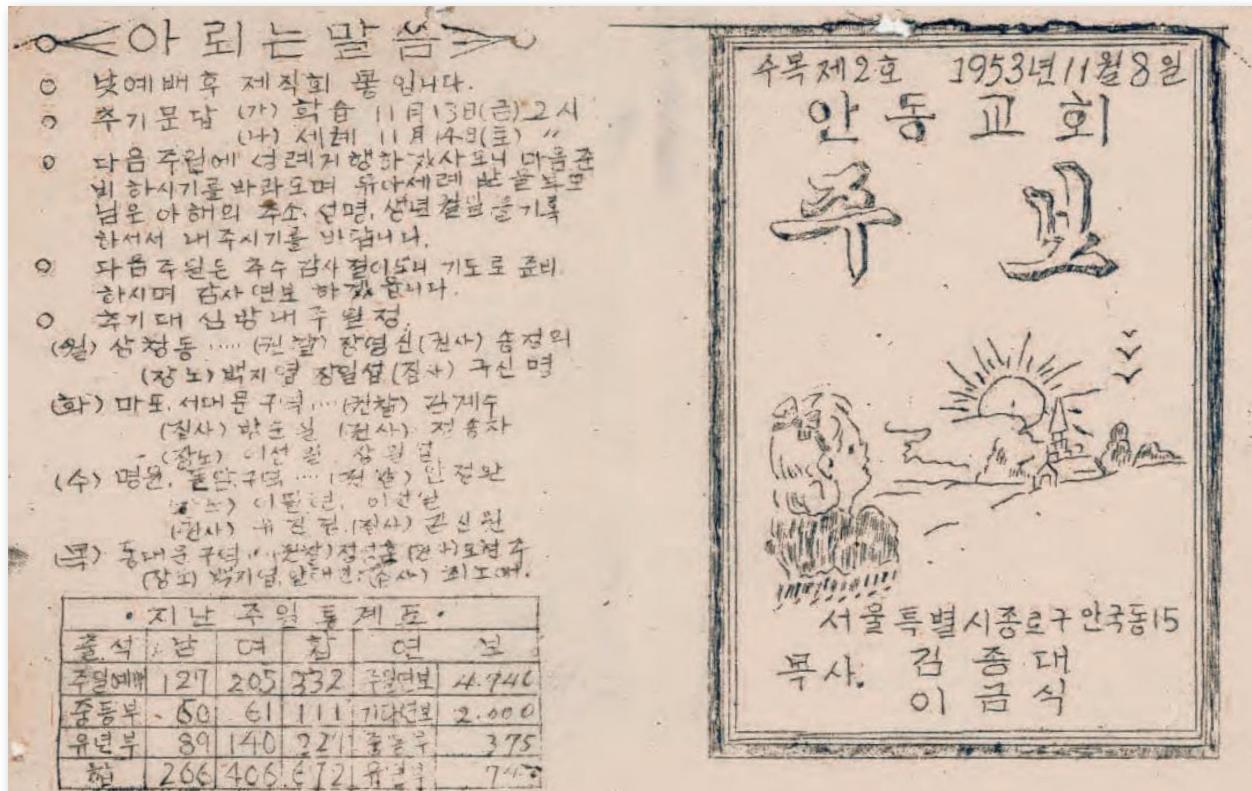
**안동교회**  
**주보**

표어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모  
하고 자기 심자 가를 치고 나를  
쫓을것이니라. (마태 10:3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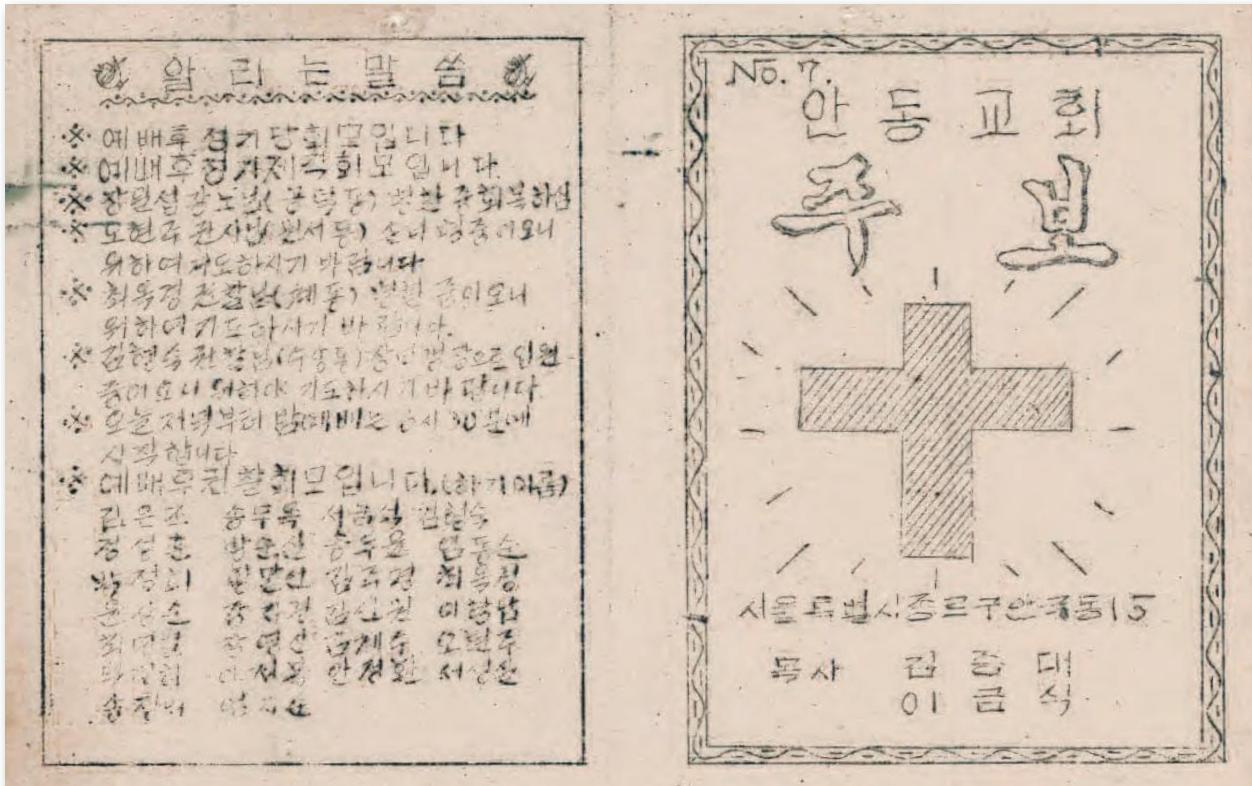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5)  
목사 김종대  
이금식

추기 대심방 일정 (1953년 11월 1일자 주보)



추기 대심방 일정 (1953년 11월 8일자 주보)



권찰 회원 명단 (1953년 12월 13일자 주보)

### 3.4 주일학교 교육의 현장을 지킨 교회 역사의 산증인 – 오현주

#### 안동교회 여전도회 인물열전⑤



주일학교 교육의 현장을 지킨 교회 역사의 산증인 오현주 권사

#### ¶ 안동교회 여전도회 10대 인물 (안동교회 여전도회 100주년 화보발간위원회 선정)

도보와 사진으로 보는 안동교회 여전도회 100년사

no.	이름	여전도 회장 재임 년도	no.	이름	여전도 회장 재임 년도
1	이범숙	1913, 1917, 19470이전 1회 이상	6	윤경희	1958–1959, 1962–1963
2	홍숙자	1933, 19470이전 1회 이상	7	백정희	1964–1965
3	유진경	19470이전 1회 이상	8	공덕귀	1954–1955, 1969–1972
4	유각경	1935–1936, 19470이전 1회 이상	9	조화순	1973–1976, 1981–1982, 1984
5	오현주	1933, 19470이전 1회 이상	10	이정숙	1979–1980, 1990, 2004

## P 오현주의 약력

1	생몰연대(향년)	1890–1989(99세)	8	딸	—
2	본 교회 출석기점	1927(37세)		자부	조윤자(강성균)
3	신급	권사		손녀	—
4	제직 등재번호	9번 / 720명		손부	신혜경(강임구)
5	배우자	강낙원		증손녀	—
6	여전도 회장 재임	1933, 1947이전 1회 이상		증손부	—
7	증언자(관계)	강해산 권사(손녀)			
9	대표 업적	주일학교교육의 현장을 지킨 교회역사의 산증인			
	리더십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일학교 교사와 제직으로 충성을 다함</li> <li>② 교회 현금 회계와 경조사 봉사 등 교회 살림을 돌봄</li> </ul>			
	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교회 초상시 수의 재단</li> <li>② 성탄 발표 준비와 새벽송 후 집으로 주일학교 교사 초대 대접</li> </ul>			
	교회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4대에서 제10대까지 담임목사 일곱 분을 섬김(김우현 최거덕 김종대 이금식 오덕유 용재호 유경재)</li> <li>② 성경 66권의 요절을 암송하고 분반 공부에서의 성경 교수를 철저히 준비하며 가르치는 말씀을 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하는 등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 특히 교회 청소년 지도에 공이 큼</li> <li>③ 여제직으로 교회 현금 회계와 경조사 봉사와 교회 초상시 수의 재단</li> <li>④ 예장과 기장 갈등에서 1962년 3월 4일 창립 53주년 기념 주일에 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로 복귀했을 때 대리석 현판을 기증</li> </ul>			
	교회 연합사업	서울 사대문 안 연동 승동 새문안 교회와 함께 한 주일학교 연합 활동을 적극 후원			

## P 오현주의 제직연표 (1954–1989)

■ 전도사 ■ 권사 ■ 서리집사 ■ 명예권사

no.	입회	이름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계	비고
9	9	오현주	1	1	1	1	1	1	1	1	1	1	10	—
no.	입회	이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계	비고
9	9	오현주	1	1	0	0	0	0	1	1	1	1	6	—
no.	입회	이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계	비고
1	9	오현주	1	1	1	1	1	1	1	1	1	1	10	—
no.	입회	이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계	비고
1	9	오현주	1	1	1	1	1	1	0	0	0	0	6	—

※ 1. 'no.'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고등반 졸업 (1938)

오현주(앞 줄 흰 두루마기)가 이끈 고등반 졸업생,

뒷줄 가운데 세 사람 중 오른쪽 끝이 이해선. 당시 담임목사 제4대 김우현 목사



꽃주일 주일학교 교사들의 기념 촬영 (1941. 6. 8)

제5대 최거덕 목사 당시

뒷줄: ○○○ 유덕재 ○○○ 유병국 이한종 서수준 이종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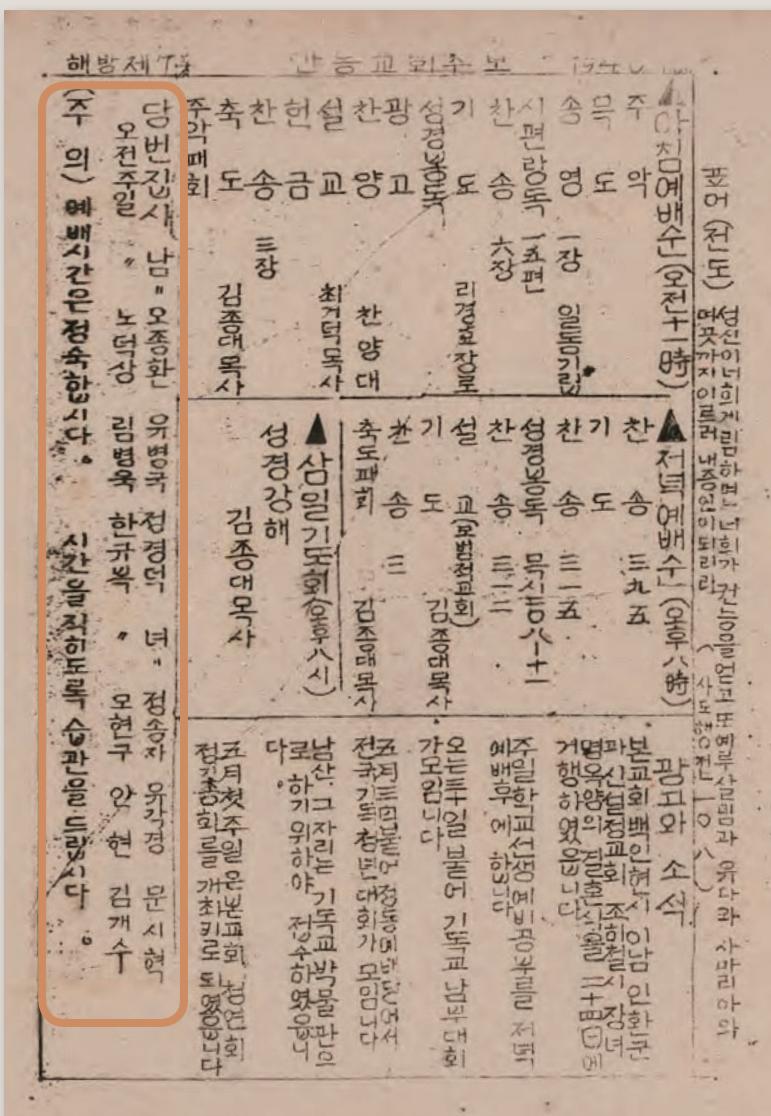
앞줄: ○○○ ○○○ ○○○ ○○○ 오현주 최거덕 이필현 ○○○ 박애순 ○○○



백지엽 이필현 장로 취임식 기념 (1941. 6. 22)

뒷줄: 이향세 김정목 정송자 박애순 안정완 오현주 정경덕 윤택선 유각경

앞줄: 변영하 ○○○ 김정현 이필현 최거덕 백지엽 이선일 이봉영 윤활란



해방 제7호 주보 (1946. 4. 28)

제6대 김종대 목사 때에 발간된 주보.  
주일 당번 집사 명단에 오현주가 보인다.

당번진사 나님 "오종화" 유령이  
오전주일 노덕상 림병욱 한규복 정경덕 녀 "정송자" 유각경 문시현  
" " 모현구 안현 김개수



학생 임원 졸업 기념 (1955. 2. 13)

제7대 이금식 목사 당시

3열: 김미영 윤상경 이병주 이순종 이효순 김경애 장석우 김성열 이효종 ○○○ 김동훈 ○○○

2열: 노준영 김영옥 정석원 김형석 오현주 장용관 변규용 양준홍

1열: 방순원 이봉영 백지엽 이금식 이필현 이선일 이해동 안태인



정석원 노영복 장로 장립 (1960. 12. 18)

우측 출입문 앞 오른쪽 맨 끝이 오현주 권사



새 성전 입당식에서의 오현주 (1979)

제10대 유경재 목사(가운데 흰 가운) 오른쪽 옆이 오현주 권사

고 오현주 권사 생전에 안동교회에서 신앙 생활하셨던 오래된 이야기들을 손녀 되는 강 해산 권사로부터 실타래 풀어지듯 시작 되었다.

자녀는 1남 1녀 두셨으며 부군 되시는 강낙원 선생께서는 6.25동란 때 납북되셨으며 (대한 체육회 발기인) 두 남매를 홀로 키우셨다.

안동교회에서 40여 년간 신앙 생활을 통하여 말씀과 믿음이 깊으셨으며 (김우현, 최기덕, 이금식, 융재호, 유경재)목사님 다섯 분을 섬기며 교회 학교 반사로서 성경 66권 요절 암송으로 문답으로 시험하고 성경 분반 공부로 이어지는 교사의 사명 온전히 감당코저 목상과 생활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중생의 삶으로 거듭 나고저애쓰셨으며 여전도 회장과 교회헌금 회계와 경조사 봉사로 초상 시에는 수의를 꼭 재단 하셨단다.

크리스마스 성극지도 성탄 새벽 송 후에 오 권사님 댁에서 자부(조윤자 권사 1회 효행 상)솜씨로 끊여낸 떡국으로 추위를 녹이는 은혜로운 시간도 있었으며 그 당시 안동, 연동, 승동 새문안교회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계를 이끌었던 대단한 교회였다고 회상 하셨으며 99세 소천하시기까지 치매로 여러 해 자리보전 하셨고 소천 하셨으며 자녀 손 모두 신앙의 유산으로 각처에서 예수님이 증거하며 일꾼의 사명 잘 감당하고 사는 것에 감사하며 오 권사님 생전에 성경 요절 쓰신 것과 사진 몇 점 교회로 가져오시겠다고 약속 하셨다.

### 오현주 권사를 증언한 손녀 강해산의 글

오현주 권사의 부군 강낙원 선생은 대한체육회의 발기인으로 6·25사변 중에 피랍, 납북되었다. 오현주는 슬하의 1남1녀를 홀로 키웠다. 한편 오현주의 자부이자 강해산의 모친인 조윤자 권사는 1997년 안동교회 제1회 효행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3.5 섬김과 봉사로 평생을 바치다 – 윤경희

#### 안동교회 여전도회 인물열전⑥



섬김과 봉사로 평생을 바친 윤경희 권사

#### ¶ 안동교회 여전도회 10대 인물 (안동교회 여전도회 100주년 화보발간위원회 선정)

도보와 사진으로 보는 안동교회 여전도회 100년사

no.	이름	여전도 회장 재임 년도	no.	이름	여전도 회장 재임 년도
1	이범숙	1913, 1917, 19470 전 1회 이상	6	윤경희	1958–1959, 1962–1963
2	홍숙자	1933, 19470 전 1회 이상	7	백정희	1964–1965
3	유진경	19470 전 1회 이상	8	공덕귀	1954–1955, 1969–1972
4	유각경	1935–1936, 19470 전 1회 이상	9	조화순	1973–1976, 1981–1982, 1984
5	오현주	1933, 19470 전 1회 이상	10	이정숙	1979–1980, 1990, 2004

## P 윤경희의 약력

1	생몰연대(향년)	1915–1995(80세)	8 안태인회 내 직계 여제직 (배우자)	딸	—
2	본 교회 출석기점	1939(24세)		자부	—
3	신급	권사		손녀	—
4	제직 등재번호	15번 / 720명		손부	—
5	배우자	안태인		증손녀	—
6	여전도 회장 재임	1958–1959, 1962–1963		증손부	—
7	증언자(관계)	계명의 권사(교우)			
9	대표 업적	섬김과 봉사로 평생을 교회에 헌신하다			
	리더십의 특징	① 교회가 예장 기장의 분열로 어려웠던 10년 동안 4년간을 여전도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강직한 리더십으로 교회를 지킨다 ② 자신을 위해서는 검약하고 교회를 위해서는 아낌 없이 바치는 자기 절제와 교회 충성의 리더십으로 본을 보이다			
	친교	① 자택을 개방하여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대의 수련회 장소로 지원하다 ② 여전도회의 서기와 회장 등으로 봉사하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다			
	교회봉사	슬하에 자식이 없었으나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자식 삼아 유년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각급 교회학교 교사 및 찬양대로 봉사하는 교회 청년들을 격려하고 돌보다			
	교회 연합사업	부군 안태인 장로와 함께 거액의 전도기금과 선교기금 등 수차례의 현금과 현물로 교회를 섬기다			

3. 계례와 교회의 아픔을 품은 신앙의 어머니들 (1945–1976)

## ¶ 윤경희의 제직연표 (1954–1995)

■ 전도사 ■ 시무권사 ■ 서리집사 ■ 명예권사 ■ 은퇴권사

no.	입회	이름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계	비고
15	15	윤경희	1	1	1	1	1	1	1	1	1	1	10	—
no.	입회	이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계	비고
11	15	윤경희	1	1	1	1	1	1	1	1	1	1	10	—
no.	입회	이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계	비고
3	15	윤경희	1	1	1	1	1	1	1	1	1	1	10	—
no.	입회	이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계	비고
2	15	윤경희	1	1	1	1	1	1	1	1	1	1	10	—
no.	입회	이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비고
1	15	윤경희	1	1	0	0	0	0	0	0	0	0	2	—

※ 1. 'no.'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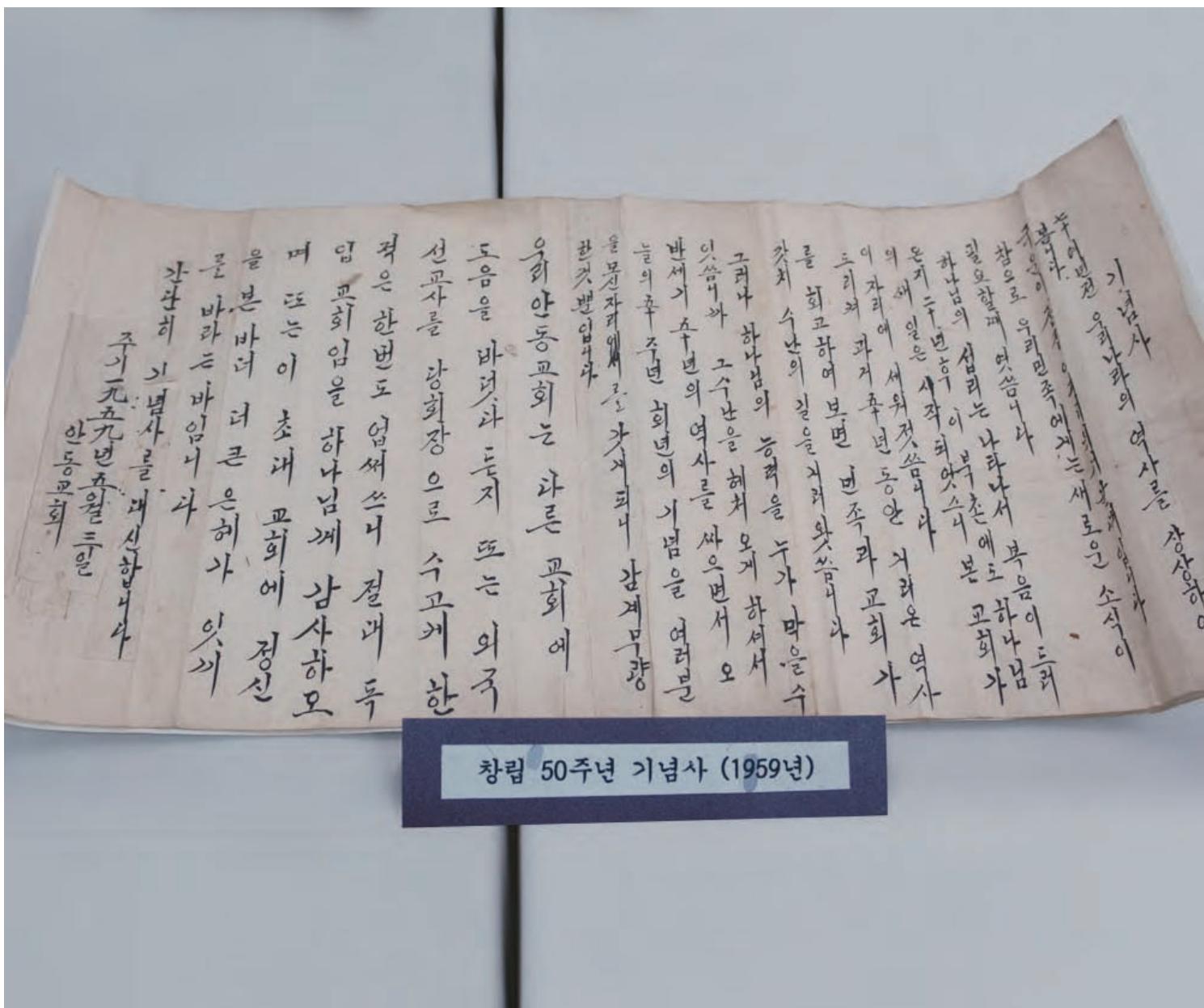


광나루 안태인 장로 댁에서 가진 교사 및 찬양대원 하기 수양회 (1955. 8. 6)

3열: ○○○ ○○○ ○○○ 윤경희 ○○○ 조동훈 장석우 김병도 양준홍 ○○○ 이종상 김종기

2열: ○○○ 이삼영 안태인 이금식 이효종

1열: 이은종 이희성 민대홍 김해성 박기만 민석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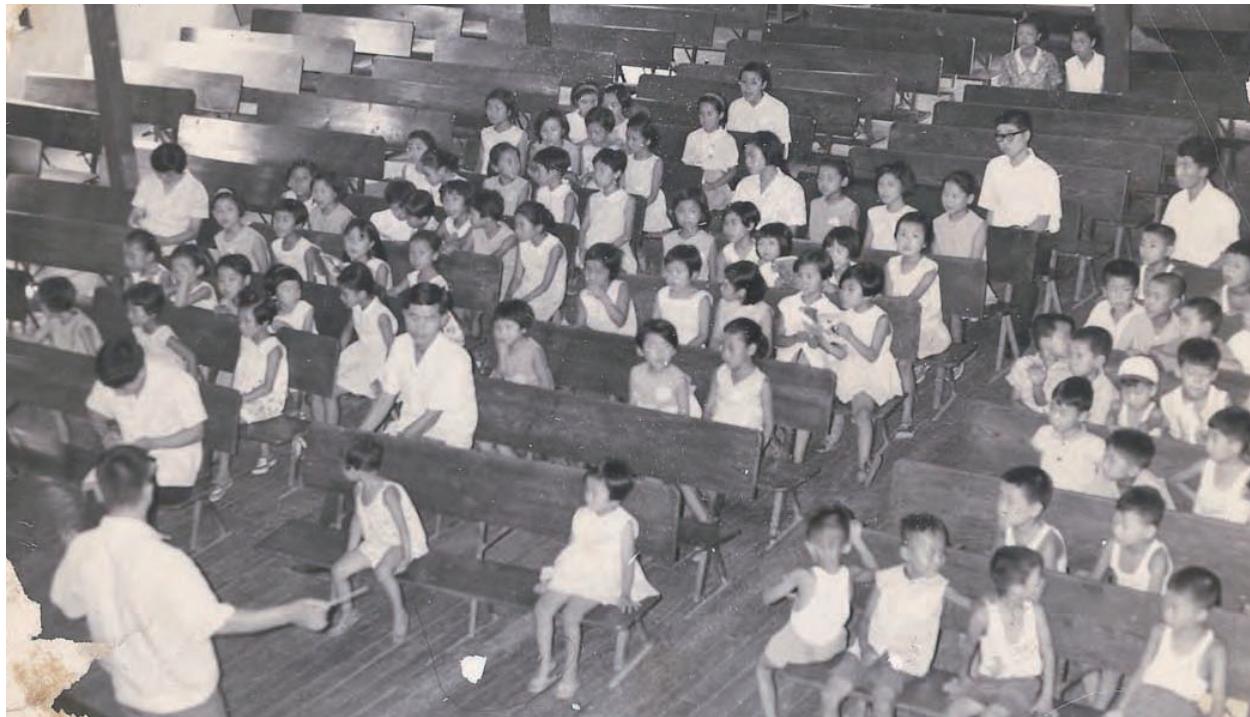
창립 50주년 기념사 (1959)

교회 창립 50주년 당시 여전도 회장은 윤경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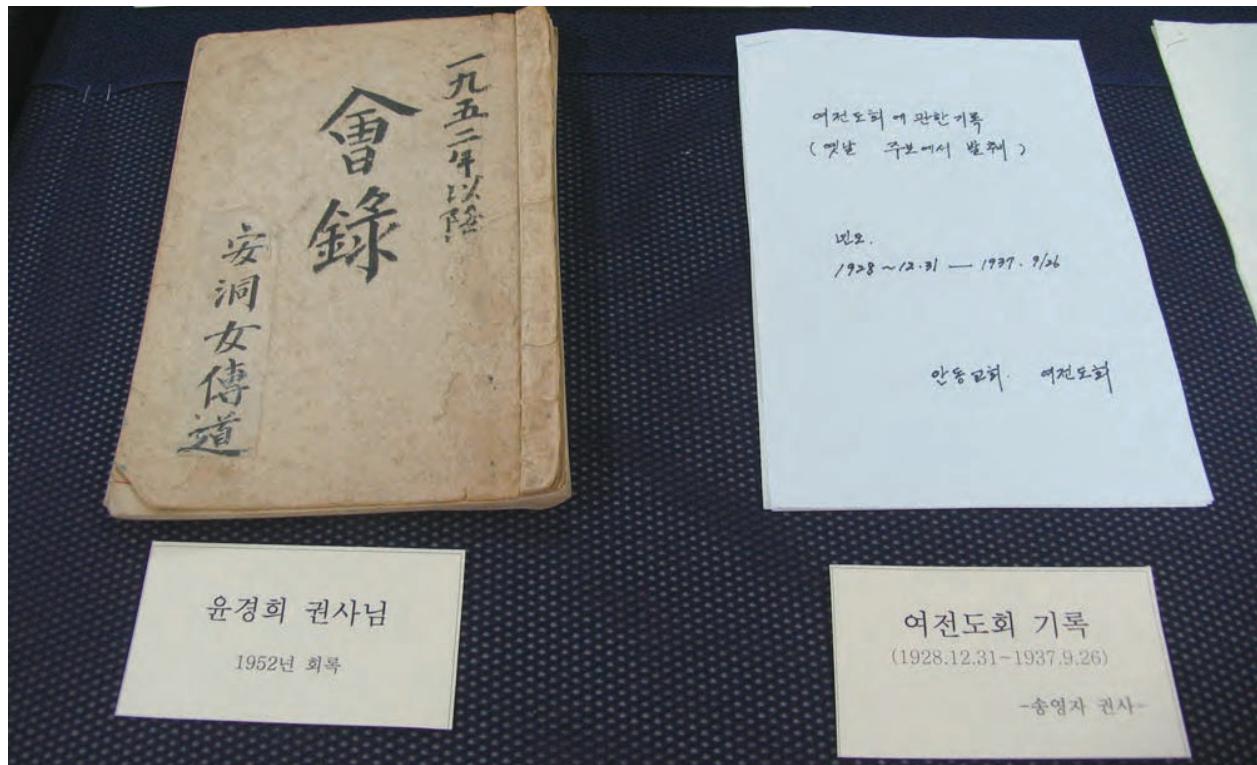


윤경희의 부군 안태인 원로장로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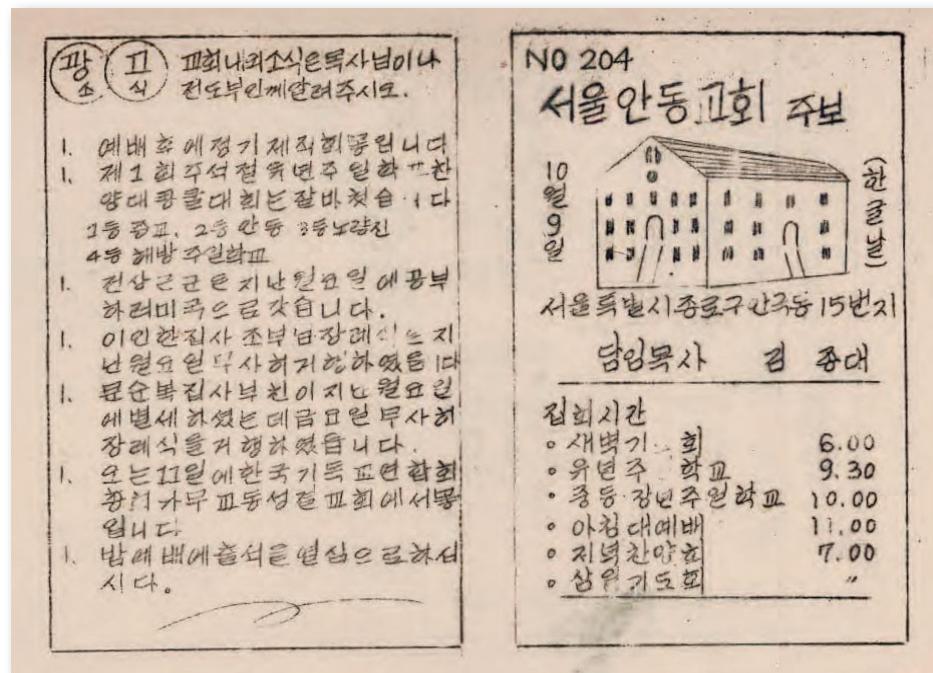
안태인은 1972년 3월 12일 원로장로로 추대되었다. 그는 우리 교회에서 ‘꾸준한 신앙의 봉사자’로 기리어진다. 윤경희와 안태인은 수차례에 걸쳐 교회에 거액의 현금과 현물을 하였으며 평생을 바쳐 교회에 헌신했다. 그들의 생활이 근검 절약했기에 그 헌신은 그토록 마음을 다한 것이었다. 대표적으로는 1987년 안윤전도기금 1억2천만 원 현금, 1990년 안태인 서거 후 윤경희가 선교 기금으로 2억 추가 현금.



구예배당 1층에서 모인 유년 주일학교의 모습



교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여전도회에서 전시한 윤경희의 서기록 (2009. 5.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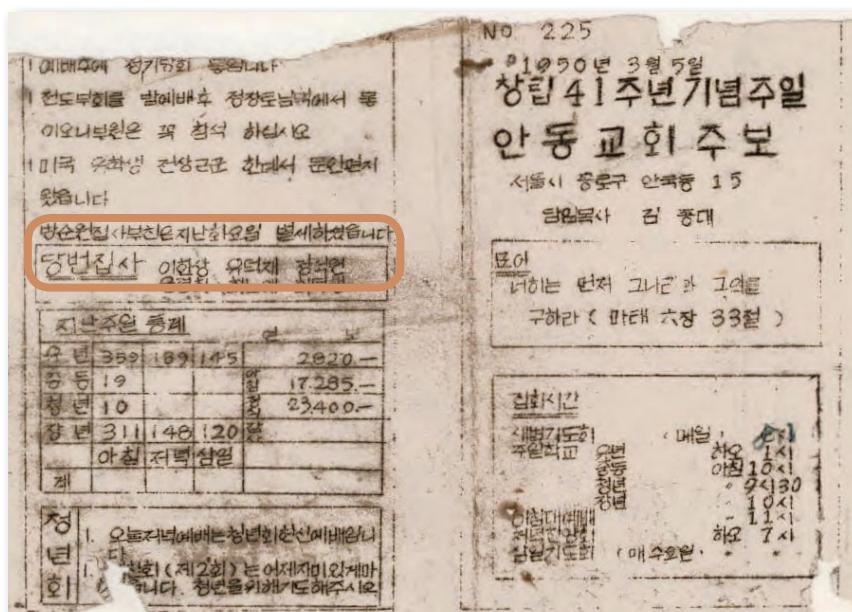


유년 주일학교의  
찬양 콩쿨 수상 광고  
(1949년 10월 9일자 주보)



주보에 적힌 <어린이 사랑> 구호 (1949년 11월 20일자 주보)

안태인 윤경희 내외는 유년주일학교 부장과 반사로 평생을 헌신했다. 사진은 1949년의 감사절 주보.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가정의 어린이는 주일학교에 보냅시다.' 등의 <어린이 사랑>을 강조한 구호가 눈에 띈다.



창립 41주년 기념 주일 주보 (1950. 3. 5)

윤경희는 부군 안태인을 따라 1939년 가을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했다. 사진은 6·25사변 발발 직전의 주보로 당번 집사 윤경희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 윤경희 권사님

“총명하고, 단정하시고, 조용하면서도 불의를 보시고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반드시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곧은 성격의 소유자”  
라는 호칭이 붙으신 윤경희권사님!

그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가정에서 자라셨기에  
성격형성에 좋은 영향을 받으신 것 같다.  
배화여고에서는 배구 선수로 활약을 하실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셨으며.  
안태인 장로님과 결혼한 이후에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직 교회중심적인 생활을 하셨다. 주일이 되시면  
안장로님과 함께 천호동에서 기동차를 타시고, 2~3시간 걸려 교회에 나오서  
오전 9시에 시작하는 유년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다.  
슬하에 자식이 없으셨으나, 우리교회 어린이교육과 청소년교육에 열의를 보이셨다.  
매년 여름방학이 시작 될 무렵이되면 광나루 모래사장에  
아주 커다란 텐트를 쳐놓으시고  
중·고등부, 주일학교교사, 성가대가 순번에 따라 캠프를 하도록  
숙·식을 지원해 주셨고, 여자들을 위해서는 본인 자택도 다 개방해 주셨다.  
포도 과수원에서 마음껏 포도를 먹게해 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70년대에 어머니(고 한선호권사)를 따라 여전도회에 몇번 참석 했었을 때의  
기억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회의도중 질문 및 발언을 하는데  
“어쩌면 저렇게도 똑똑하고 분명하게 꼭 필요한 때 질문을 하실까”라고  
감탄을 하게끔 했던 분이 윤권사님이셨다.  
여전도회장을 세번 역임하셨으며, 회의록 서기도 여러번 하셨다.  
그 서기록을 보면 한자를 섞어서 반듯하게 쓰신 명필로  
모랫동안 세월이 흘렀어도 권사님의 체취가 느껴지는 듯 하다.  
안·윤 전도기금 외에 안장로님 소천하신 후에도 2억원을 선교기금으로  
쾌척하시었다.  
그렇지만 얼마나 근검절약 하신지. 돌아가시기 얼마전에  
여전도회원들이 심방을 갔다가,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닌 재례식 그대로인 걸  
보고는 너무나 놀랐다는 말씀(송영자권사님전언)을 듣고  
교회에는 자신의 집을 판돈 외에도 거액의 현금을 하시면서  
근검절약 하셨던 모습은 듣는 모두를 숙연케했다.  
천국에서도 우리 교회와 여전도회를 보시고 계실 것 같은 권사님이  
“참! 잘하고 있네” 미소지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권사님의 글을 맺습니다.

윤경희를 중언한 교우 계명의의 글

### 3.6 전쟁의 환난 속에서 사랑을 꽂 피우다 – 백정희

#### 안동교회 여전도회 인물열전⑦



전쟁의 환난 속에서 사랑을 꽂 피워낸 백정희 권사

#### ¶ 안동교회 여전도회 10대 인물 (안동교회 여전도회 100주년 화보발간위원회 선정)

no.	이름	여전도 회장 재임 년도	no.	이름	여전도 회장 재임 년도
1	이범숙	1913, 1917, 19470 전 1회 이상	6	윤경희	1958–1959, 1962–1963
2	홍숙자	1933, 19470 전 1회 이상	7	<b>백정희</b>	<b>1964–1965</b>
3	유진경	19470 전 1회 이상	8	공덕귀	1954–1955, 1969–1972
4	유각경	1935–1936, 19470 전 1회 이상	9	조화순	1973–1976, 1981–1982, 1984
5	오현주	1933, 19470 전 1회 이상	10	이정숙	1979–1980, 1990, 2004

## P 백정희의 약력

1	생몰연대(향년)	1905–1988(83세)	8 안동교회 내 직계 여제직(배우자)	모친	※본 교회 출석하셨으나 이름 불명
2	본 교회 출석기점	1943(38세)		시모	—
3	신급	권사		딸	이종미
4	제직 등재번호	27번 / 720명		자부	—
5	배우자	이규왕		손녀	—
6	여전도 회장 재임	1964–1965		손부	—
7	증언자(관계)	이종미 권사(딸)		증손녀	—
9	증언자(관계)	증손부		증손부	—
9	대표 업적	전쟁의 환난 속에서 사랑을 꽂 피우다			
	리더십의 특징	① 6·25사변과 공산주의자들로 인해 부군과 두 아들을 잃는 참화를 겪었으나 신앙으로 이겨내고 전쟁의 참변을 겪은 이웃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다 ②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웃들을 찾아서 돋고 헌신하다			
	친교	유각경, 방순실, 조계숙 등 다른 여전도 회원들과 협력하여 활동하다			
	교회봉사	① 피아노와 하몬드올간 구입 모금과 교회 사업을 위한 바자회 활동을 하다 ② 방순실, 조계숙과 함께 별세한 교우들의 염을 도맡아 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다			
	사회봉사	① 방순실과 더불어 서울 적십자병원 봉사에 열성을 다하다. 100시간, 300시간, 500시간 봉사상을 수상하다. ② 전쟁 후 서울 복구 활동에 적극 나서다 ③ 전쟁 후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양연회를 통해 도움 받게 하다 ④ 병원비가 없어 입원하지 못하는 이들의 입원을 경제적으로 돋다 ⑤ 행렬 병자들의 시신 처리를 위해 염을 배워 봉사하다			
	교회 연합사업	① 서울여대 건립 모금에 앞장서다 ② 유각경과 더불어 여전도회 전국 연합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다			

## ¶ 백정희의 제직연표 (1954–1987)

■ 전도사 ■ 시무권사 ■ 서리집사 ■ 명예권사 ■ 은퇴권사

no.	입회	이름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계	비고
27	27	백정희	1	1	1	1	1	1	1	1	1	1	10	—
no.	입회	이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계	비고
17	27	백정희	1	1	1	1	1	1	1	1	1	1	10	—
no.	입회	이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계	비고
7	27	백정희	1	1	1	1	1	1	1	1	1	1	10	—
no.	입회	이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계	비고
6	27	백정희	1	1	1	1	0	0	0	0	0	0	4	—

※ 1. 'no.'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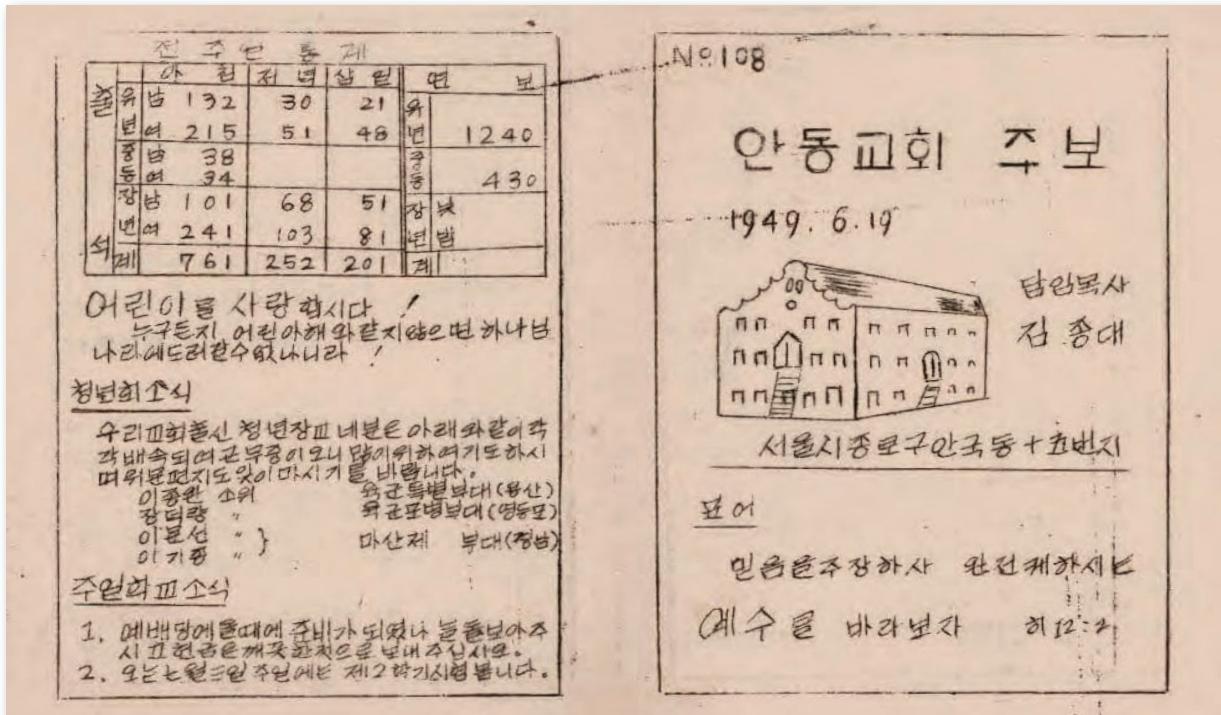


여전도 회원들의 즐거운 한 때

백정희의 활동의 특징은 어떤 분야의 일이든지 다른 회원들과 더불어 활동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다.

뒷줄: 박숙녀 오목사사모 엄지순 ○○○ 김원보 ○○○ 김남금 김효숙 ○○○

앞줄: 이혜정 ○○○ 김은조 하봉태 이윤돌 백정희 장분옥



우리 교회 출신 청년 장교 4인 명단 (1949년 6월 19일자 주보 앞면)

1949년 당시 우리 교회 출신 청년 장교로는 이종완 소위(육군 특별부대 용산), 장덕량 소위(육군 포병부대 영등포), 이문선 소위(마산 제부대 경남), 이기종 소위(마산 제부대 경남)가 있었다.

오전 대예배회 (11시)			
주	악	미	상록
찬	송	연	동기립
기	편	(4편)	
전	송	(136)	
성	또		정 인환 장로
관	송	(159)	
찬	경		
설	끄		이 필현 장로
전	양		찬 양 대
찬	교		감 목사님
축	금		이 필현 장로
승	송	342:1,5	안 동 기립
때	도		감 목사
	영		찬 양 대
	회		

저녁 예배 (9시)  
중학·대학생 출입 기념 축하 예배

삼일 기도회 (9시)  
시편 강해 감 목사

1. 예배 후에 경기 재작회 등입니다.

2. 조선신학교 졸업자는 지난 16년에 61명이 졸업하였는데 그 중 우리 교회 졸업원, 신인숙 노영자 세 분이 계십니다.

3. 박상록 (장로회신학) 윤동록 (세브란스의대) 김홍대, 전상근, 노성진, 윤남경 친오법 모정규 배인자 (교급증학) 아동분이 각각 졸업하였습니다.

4.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청년 장교 이종완 소위의 배속부대인 육군 특별부대에 찬양대, 유년주일학교, 유키치원 여러분이 위문전도 합니다.

5. 유키치원 여러분이 위문전도 합니다.

오늘날 정대선, 김병록, 이진진  
들이여 최노애, 방순선, 이병갑

을 날 이인한, 고윤봉, 전정복  
들이여 김혜석, 김정희, 최의행

백정희의 차남 이종완 소위 배속 부대 위문 광고 (1949년 6월 19일자 주보 뒷면)

◎알여드리는 말씀 (광고와 소식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 알려 주시오)

1. 오늘 밤 예배는 전도복 예배로니 많이 참석 하십시오
1. 저희는 은혜증 금요일 무사히 맞쳤습니다.  
회장 박 융 힐 선기 유후준 전성복  
이 쟁 힐 선기 유후준 전성복
1. 이재광 집사님 차남 육군장위 종완군은 지난 토요일 별세 하셨습니다 그가정을 위하여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1. 염만복씨 부친께서는 금요일 별세 하셨습니다 육가족을 위하여 땅트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소식

1. 선생님 등학대회를 오는주일 낮예배후 개최 합니다. 학부 청어리분의 많은 관심을 원합니다. (유년부)
1. 날씨가 대단히 차워집니다 「우리들의 구제함(救濟團)」에도 날로 토사 쌓이 들어옵니다. 불상산 동포를 위하여 더 많은것이 동이기를 기대 합니다(중동부)
1. 장년주임학교에 남자반 출석이 죄입니다 청년, 장년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 하시서 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 하시며 기도로써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년부)

이종완 중위의 별세를 알리는 광고  
(1949년 11월 27일자 주보)

아침 대 예배 (11시)

주 약	찬양대
찬 송 「장복여로원」	일동기립
시 편	
송 영 「성삼위 영가」	찬양대
찬 송 「32장 활동18」	
기 도	이선열 창로
찬 송 「53장 예수는 나의 형이요 활동『42』」	
성 경	

광 고	백지엽 창로
찬 양	찬양대
설 교	김복사
헌금	백창로
찬 송 「342장 1.5.」	일동기립
축 도	김복사
송 영 폐회	찬양대

※ 밤 예배 (7시반)

여전도회 예배			
※ 삼일기도회 (7시반)			
야고보서 강해	김복사		
장남반	안대인	이봉영	
로마반	이선율	정일섭	
집사	노영복	방순원	정대선
	김혜석	문준복	주월영

오는주일 이오현 이한상 유희재  
이병진 방순실 박정희

지	아침	저녁	삽	일	연 보
유년	431	130	109		3070-
중동					
청년					
장년					
계					

1950년 3월 19일자 주보

백정희와 방순실은 서울 적십자병원 봉사에 적극적이었다. 당번 집사 명단에 두 사람의 이름이 보인다.

1953년 11월 1일자 주보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차남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교회봉사에 열심을 내던 백정희는 6·25사변이 발발하고 부군과 장남이 동시 납북되는 참변을 겪는다. 본인 역시 위험에 처해 잠시 피해 있다가 9·28 서울 수복 후 다시 교회를 찾았다. 그러던 중 강단에서 선포되던 설교에 크게 상처를 받고 실망하여 교회를 아예 떠났으나 친정 어머니의 기도 속에 회개하고 다시 피난지의 교회를 찾게 된다. 정전 이후 다시 서울로 돌아온 백정희는 오직 신앙으로 전쟁에서 겪은 모진 아픔을 달래며 예수의 사랑으로 전쟁에서 상처 받은 이웃들을 돌보며 살아간다. 사진의 주보 속 당번 집사 명단에 백정희의 이름이 보인다. 한편 6·25사변 발발 이전에는 당번 집사 명단이 남자 셋, 여자 셋이던 것이 1953년 7월의 휴전협정 이후에는 남자 둘, 여자 셋(넷)으로 변화된 것이 눈에 띈다. 전쟁은 많은 사람들 특히 군인으로 전쟁터에서 싸운 남성들의 목숨을 수 없이 앗아갔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주일의 이종미 집사 (1979)

좌로부터 이종미 계명의 이종선 이순례 류교영

## 백정희 권사님

백정희 권사님은 1905년 평양에서 출생하셨다. 일본이 대륙진출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조선을 교두보로 이용하기 위한 조선 찬탈의 계략을 세우고 활동하던 시기이다. 외가는 한국 최초의 공장인 평양 상공·양말공장을 설립한 집안으로 200리 안팎을 남의 땅을 밟지 않을 정도로 부유한 가정이셨고, 권사님의 본가도 대등강 물이 마르면 말랐지 백제당 집 돈은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들 정도로 부유한 가정이셨다. 권사님 어머님은 한학과 한글을 익히셔서 딸인 권사님에게도 천자문을 익히게 했고 동몽선습 등 한학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딸의 교육에도 열성이셔서 신학문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 맘며느리로 시집살이를 하시던 권사님 어머님은 한일합방때 남편을 잃게 되자 여자도 배워야 한다고 딸을 소학교에 보내시고, 평양 서문고녀에 진학해 신학문을 배우게 한다. 서문고녀 졸업을 앞두고 음악선생인 목이선생의 추천으로 동경 우에노 음대로 유학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조부님의 사망, 동경 대지진 후의 어수선함 등으로 유학의 길을 접고 졸업 후 학교 선생님의 길을 걷게 된다. 그 때 가르치신 제자 중의 한 분이 돌아가신 조 화순 권사님이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를 갖고 교편생활을 하시던 백권사님은 선배의 증매로 1928년 메이지대 경제학부 출신의 남편을 만나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신식 결혼식을 올리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신다. 두 아들의 탄생과 행복함 속에서 어느날 갑자기 닥친 큰아들의 갑작스러운 발병은 생애 처음 닥친 시련이었고 이 병원 저 병원 유명하다는 곳은 다 찾았고 용하다는 한의도 다 찾았으나 병명도 모른 채 꺼져가는 등불처럼 미음 한 모금도 못 넘기는 상태로 죽음의 그림자가 눈 앞에서 아들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을 손 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바로 그 때 길선주 목사님이 사경회를 인도하기 위해 평양에 오시게 되 사정을 말씀 드리고 집으로 모셔와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 하셨도다.” 하는 시편 120편 1절 말씀같이 3번의 기도를 통해 큰아들이 쾌차함을 얻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서 신앙이 깊지 않으셨던 남편과 주위의 친척과 친지들이 주님을 완전히 받아드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43년 경복중학에 다니는 큰아들과 경기중학에 다니는 작은 아들이 통학하기 좋은 화동에 자리를 잡으며 서울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백권사님은 남편과 함께 집사 직분을 맡고 안동교회와 인연을 맺게 된다.

1945년 해방이 되고 좌·우익 사상대립에 의한 극심한 혼란 속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시댁 어른들의 귀경과 함께 경희대학교 전신인 신흥대학교 이사와 심계원 제 1국장이셨던 남편과 함께 서울대 3학년 재학중인 큰 아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육사를 택

백정희 권사를 증언한 딸 이종미의 글 ①

한 작은 아들, 14년만에 얻은 딸, 그리고 친정 어머님과 안동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다.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큰아들은 청년부와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주일이면 예배 후 권사님댁에 모여 토론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며 청년들의 모임장소로 개방되어 있었다. 특히 친정 어머님의 남달랐던 음식솜씨와 손대접하기를 즐겨하셨던 성품으로 인해 권사님댁은 항상 젊은이들로 활기차 있었다. 그러나 소위로 임관한 후 군내부의 좌·우익 분열 등으로 갈등을 겪던 1950년 1월 작은 아들의 죽음, 이어 닥친 6·25 사변, 그리고 큰 아들과 남편의 납북은 그의 생을 통해 치유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백권사님 자신도 1950년 9월 26일 공산당 총살명단에 들어 있는 것을 빨리 피하라는 쪽지를 누가 대문에 넣어 주어 그 길로 먼 칙칙 집에 피해 있다가 9·28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도 신앙을 잃지 않으려 했던, 아니 하나님께 매달릴 수 밖에 없었던 권사님은 9·28 이후 무너져 내린 가슴을 안고 주일 예배에 나갔는데, 6·25 발발 후 김일성을 찬양하시던 분이 다시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는 설교를 들으시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와 연을 끊으시게 된다. 곧 이은 1·4 후퇴로 어머님과 9살 된 어린 딸을 데리고 밀양으로 피난을 하셨는데 교회쪽을 바라보지도 않는 백권사님이 정착한 곳은 대나무 담장을 사이로 하는 교회와 붙은 집이었다. 새벽기도에서 들려오는 찬송소리, 통성기도소리에 매일 아침을 맞이하게 된 권사님은 신앙을 되찾지 못하시고 원망과 이중적 설교를 하신 목사님을 들먹이시며 가족 누구도 교회 근처를 가지도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아침마다 들려오는 찬송과 통성기도 소리에 잠을 깨면서 새벽에 숨어 기도하는 어머님의 모습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6개월 만에 교회를 다시 찾으며 “주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라는 시편 56편 13절의 고백을 하게 되신다.

그 참혹한 시련을 겪은 권사님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는 로마 8장 38~39절 말씀 같이 하나님께서 왜 거처를 교회 담에 붙은 집으로 정해 주셨는지 깨닫기 시작하면서 회개와 용서를 구하고 그 때부터 1988년 수를 다 하실 때까지 다시 신앙의 줄을 잡고 놓지 않으셨다.

환도 후 다시 안동교회를 찾으셨고, 폐허가 된 서울 복구와 병원의 손이 모자를 때 1954년부터 서울 적십자 병원 봉사를 캐나다로 이민가신 방순실 권사님과 함께 5·16 혁명 후 육영수 여사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고위층 봉사 모임으로 될 때까지 계속 하시

면서 100시간, 300시간, 500시간 봉사상을 타시기도 하셨다. 또한 교회에 피아노, 하몬드 올겐 등의 구입 모금, 바자회 등에 앞장 서셨고, 한국 여성계의 선각자이신 유각경 권사님을 신앙의 선배로 모시고 여전도회 활동과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일, 서울여대 건립 모금 등 신앙생활의 실천을 앞서 하셨다. 동네에서는 한국 전쟁 후 어려운 아이들을 양연회를 통해 도움받게 하고, 돈이 없어 입원 못하는 이들을 적십자 병원에 입원시켜 돋는 등 많은 일을 하셨다. 또한 적십자 병원 봉사 중에 행렬병자들의 사후처치가 매우 어려운 것을 아시고 방순실 권사님과 함께 이들의 시신처리를 위한 염을 배우셔서 봉사하신 일들을 통해 권사님의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죽음의 의식인 염을 배우셔서 병원 봉사만이 아니라 병원 장례식장이 생기기 전까지 방권사님 이민 이후 조계숙 권사님과 함께 교회의 돌아가신 교우들의 염을 부탁하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구를 움직이시지 못할 때까지 계속 하신 것은 노년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려고 한 신앙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권사님의 생애를 돌아볼 때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교사로 시작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 것으로 생각되는 그의 생애에 상상도 못했을 갖가지 고난과 곡절의 조각들이 끼어 들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 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신명기 8장 22절 말씀 같이 완고와 교만, 죄악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 영원히 살아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 함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증언케 하려 하였음을 깨닫게 한다.

#### 백정희 권사를 증언한 딸 이종미의 글 ③



#### 6·25사변 당시 공산군에 살해 당한 허영순 권사

허영순 권사는 고병걸 집사의 모친으로 대한부인회 활동 등 당대의 여성 지도자로 활약했으며 우리 교회에서는 1949년 현재 삼청 구역 권찰(허영숙과 동일 인물)로 섬겼다. 그는 1950년 9월 24일 삼청 공원에서 다른 세 사람과 함께 공산군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그의 부군인 고영환 집사가 공산군에 붙들려 납치된 지 3일 뒤의 일이었다. 허 권사가 살해된 지 4일 만에 서울이 수복되었다. 위의 사진은 7세의 나이에 모친과 부친을 한 번에 잃은 고병걸 집사(권혜순 권사의 부군)가 제공한 것이다.

#### ¶ 6·25사변 중 피랍 교인과 공산주의자들에게 희생된 교우들 (1949~1983)

no.	이름	가족관계	년도	비고
1	이종완	백정희 권사의 차남	1949	육군중위, 군 내부의 좌우 갈등과 분열로 희생
2	이규왕	백정희 권사의 부군	1950	6·25사변 중 피랍
3	이종익	백정희 권사의 장남	1950	6·25사변 중 피랍
4	강낙원	오현주 권사의 부군	1950	6·25사변 중 피랍
5	오봉빈	김주명 권사의 부군	1950	6·25사변 중 피랍
6	유병우	유각경 권사의 종질	1950	6·25사변 중 피랍
7	유병문	유각경 권사의 종질	1950	6·25사변 중 피랍
8	고영환	고병걸 집사의 부친	1950	6·25사변 중 피랍
9	허영순	고병걸 집사의 모친	1950	6·25사변 중 인민군에 의해 살해
10	김우식	김혜자 권사의 부친	1983	소련군의 KAL기 피격사건으로 사망
11	유병숙	김혜자 권사의 모친	1983	소련군의 KAL기 피격사건으로 사망

### 3.7 교회 여성을 일깨운 신앙의 선각자 - 공덕귀

#### 안동교회 여전도회 인물열전⑧



교회 여성을 일깨운 신앙의 선각자 공덕귀 권사

#### ¶ 안동교회 여전도회 10대 인물 (안동교회 여전도회 100주년 화보발간위원회 선정)

도보와 사진으로  
보는 안동교회 여전도회 100년사

no.	이름	여전도 회장 재임 년도	no.	이름	여전도 회장 재임 년도
1	이범숙	1913, 1917, 19470 전 1회 이상	6	윤경희	1958–1959, 1962–1963
2	홍숙자	1933, 19470 전 1회 이상	7	백정희	1964–1965
3	유진경	19470 전 1회 이상	8	공덕귀	1954–1955, 1969–1972
4	유각경	1935–1936, 19470 전 1회 이상	9	조화순	1973–1976, 1981–1982, 1984
5	오현주	1933, 19470 전 1회 이상	10	이정숙	1979–1980, 1990, 2004

## ¶ 공덕귀의 약력

1	생몰연대(향년)	1911–1997(86세)	8	모친	—
2	본 교회 출석기점	1949(38세)		시모	이범숙(윤치소)
3	신급	권사		딸	—
4	제직 등재번호	24번 / 720명		자부	양은선(윤상구)
5	배우자	윤보선		손녀	—
6	여전도 회장 재임	1954–1955, 1969–1972		손부	—
7	증언자(관계)	김혜자 권사(교우)		증손녀	—
				증손부	—
9	대표 업적	교회 여성을 일깨운 신앙의 선각자			
	리더십의 특징	① 교회 여성을 일깨워 ‘교회의 어머니,’ ‘나라의 어머니’로 세우다 ② 교회 여전도회 활동의 지평을 한국 사회와 민족으로 광역화하다 ③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자로서 교회 여성의 실천의 성서적 신학적 기반을 담지하다			
	친교	① 여전도회 월례회를 주일이 아닌 평일에 열어 주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도록 장려하다. 이는 시모이신 초대 회장 이범숙의 방침을 따른 것이다 ② 여전도회를 연령별로 구분, 네 반으로 나누어 활동하게 하다 ③ 다방면의 강사들을 초빙하여 교회 여성의 교양을 드높이다			
	교회봉사	① 자택 정원을 개방하고 젊은 부부들을 초청하여 부부 일치의 좋은 계기를 제공하다 ② 매주일 아침 자택 산장에서 60세 이상의 여교우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를 지도하다. 이는 그의 서거 3년 전까지 계속되었다 ③ 청유부를 두어 주일예배 시간 동안 유아들을 돌보다			
	선교	① 여전도회 주최 제1회 선교대바자회를 열다 ② 군 위문활동을 시작하다			
	교회 연합사업	①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서울 연합회 회장에 선임되어 일본 선교와 국내 산업선교와 버스 안내양 선교에 관심을 가지다 ② 한국교회 여성 연합회 회장으로 봉직하면서 한국의 원폭 피해자 문제와 재일동포 차별 문제 그리고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를 염두에 두어 활동하다 ③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 협의회의 여성분과 위원장과 교회 일치 여성협의회 초대 회장에 선임되어 교회의 일치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의 어머니’ 운동을 이끌다			

3. 거래와 교회의 아픔을 품은 신앙의 어머니들 (1945–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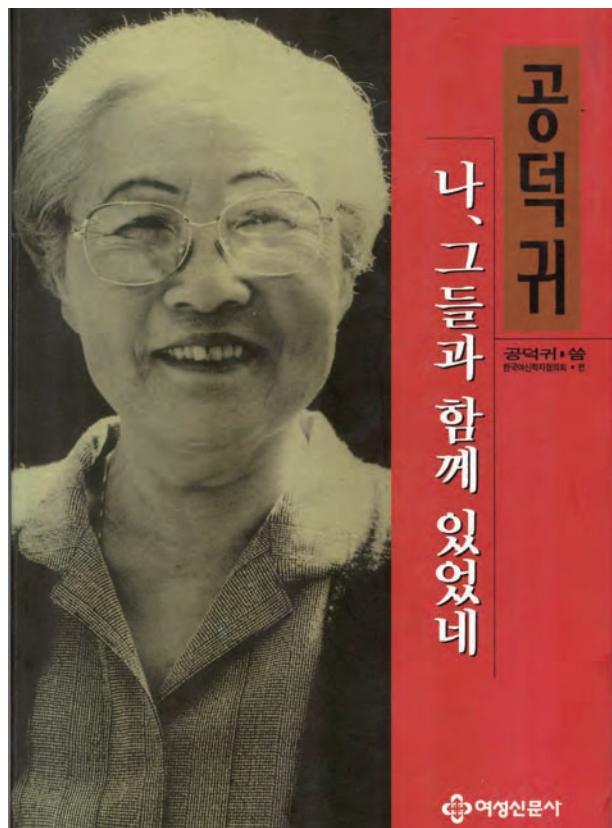
## ▶ 공덕귀의 제작연표 (1954–1997)

■ 전도사 ■ 시무권사 ■ 서리집사 ■ 명예권사 ■ 은퇴권사

no.	입회	이름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계	비고
24	24	공덕귀	1	1	1	1	1	1	1	1	0	0	8	—
no.	입회	이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계	비고
15	24	공덕귀	0	1	1	1	1	1	1	1	1	1	9	—
no.	입회	이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계	비고
5	24	공덕귀	1	1	1	1	1	1	1	1	1	1	10	—
no.	입회	이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계	비고
4	24	공덕귀	1	1	1	1	1	1	1	1	1	1	10	—
no.	입회	이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비고
3	24	공덕귀	1	1	1	1	0	0	0	0	0	0	4	—

※ 1. 'no.'는 해당 시기에서 각 사람이 차지한 일련번호이다.

2. '입회'는 각 사람의 고유번호로 1954년 이후 안동교회 여성제직으로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것이다.



공덕귀의 자서전『나, 그들과 함께 있었네』



시무권사로 임직하는 공덕귀 (1977)

3열: 주월영 최병희 이해정 조정석 김경남 목갑수 이규숙 김원보 홍경희 김차교

2열: 윤경희 김순식 공덕귀 박종환 이현자 이윤돌 홍유남 박숙녀 조화순 이근희 유현경 이순정

1열: 김성재 손영숙 김남금 최거덕 유경재 김충선 조계숙 백정희 김은조 이인보



교회 창립 70주년의 공덕귀 권사 (1979)

좌로부터 김종희 공덕귀 윤보선 서정운 손인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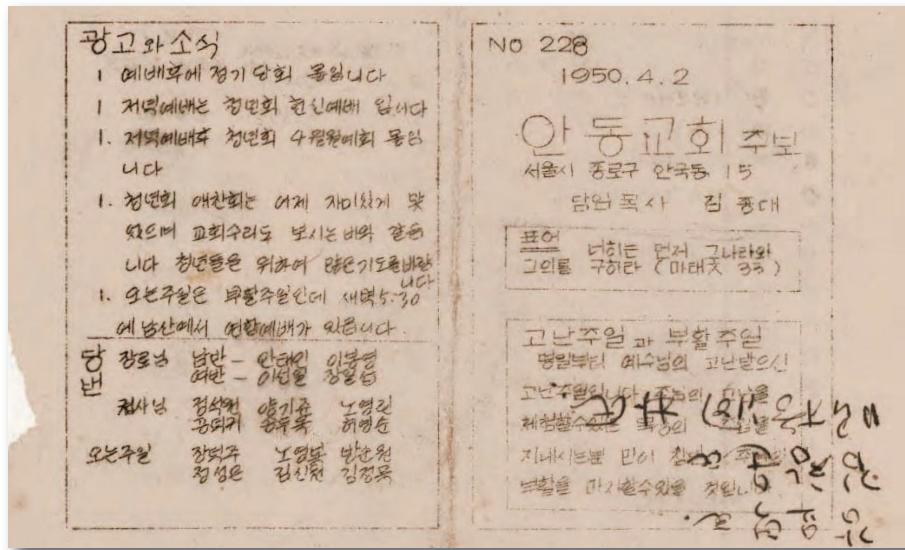


윤보선 대통령 시절 청와대를 방문한 안동교회 교인들 (1960년 여름)

앞줄 중앙의 두 분이 윤보선 대통령과 영부인 공덕귀 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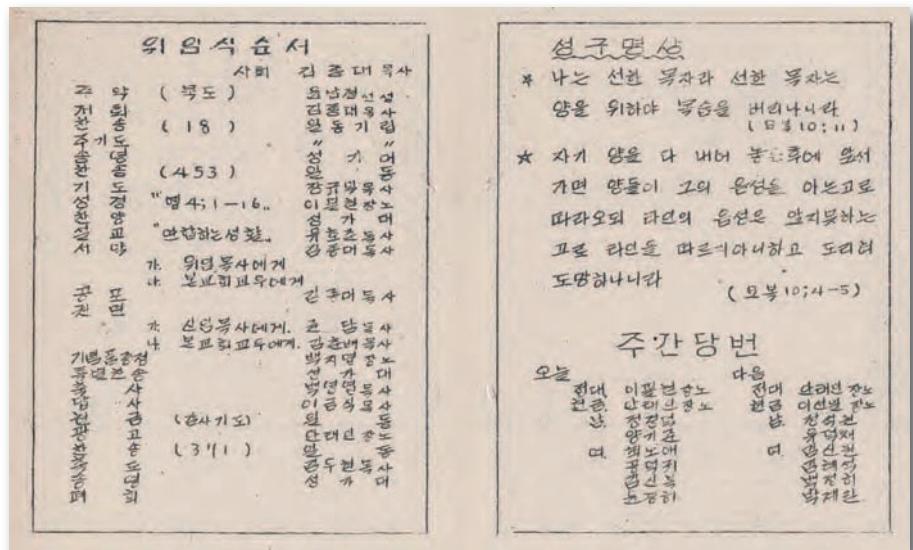


공덕귀 권사 서거 제10주기 추모식에서 인사하는 공 권사의 장남 윤상구 장로 (2007. 5. 19)



### 당번 권사 공덕귀 (1950년 4월 2일자 주보)

조선신학교 여자 신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미국 프린스턴신학교로의 유학을 준비하던 공덕귀는 해위 운보선과의 결혼으로 유학의 꿈을 접는다. 그는 1949년의 결혼 이후 우리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의 주보에 그의 직분이 '권사'로 적혀 있는 점은 흥미롭다. 1977년 유경재 목사 위임식과 더불어 진행된 권사 임직식에서 그가 시무권사 중 한 분으로 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권사'로 불린 이유는 그의 조선신학교에서의 교수 경력과 김천 황금동 교회에서의 전도사 시무 사실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 이금식 목사 위임식 순서 (1953년 12월 6일자 주보)

1953년 말 부임한 이금식 목사는 그의 목회 10년 동안 교회 소속 문제로 기장과 예장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그는 공덕귀가 전임강사로서 교수했던 한국신학대학(전 조선신학교)을 졸업했다. 1954년 11월 경기노회가 기장과 예장으로 분열하자 중립을 선포하고 당분간 노회 참석을 보류했던 우리 교회 당회는 1년 뒤인 1955년 11월 돌연 기장 소속을 선언하여 이때로부터 교회는 교단 소속 문제를 두고 오랜 갈등에 놓여진다. 1954-1955년 당시 여전도회장은 공덕귀였다. 당회가 중립을 선포한 상태였던 1955년 3월 기장측의 한국신학대학의 졸업식이 우리 교회에서 열린 데에는 여전도회장 공덕귀의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회 소식**

\* 기억하시고 협조하심을 바랍니다

- 예배후 각 기관장 회의가 모입니다
- 여전도회 임원회와 편안 연석회가 모입니다
- 오는 17일(월) 11월말 여전도회 월례회 모입니다  
특별히 학생대 강사 정윤섭 목사께서 가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신앙지도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같이 귀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 서울노회가 오는 11월 18일(화) 오후 1시부터 새문안교회에서 개회합니다

간증현금 박상준 20,000(69)

**[전주일 특별현금 하신교우]**

감사현금	김남인(차남경운) 김형숙(손녀백일) 유진경(생일) 이구현(생일) 부명세 김은수(문광찬씨미국에서 생일)	조동근(보좌장례마치고) 김전수 곽정연(첫 뚫감사)
------	---	-----------------------------------

**『교회 집회시간』**

주 일	1. 유치부 오전 9시	하충	1.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일	2. 유년부 오전 9시	하충	2. 주일예배 오전 11시
학	3. 학생부 오전 9시	분상충	3. 찬양예배 오후 7시
교	4. 장년부 오전 10시	상충	4. 삼일기도회 오후 7시

**주 전 주 일 통계 탄수 (1969. 11. 9) 일기 흐름**

집회별	남	여	계	현금	금액
유년부	68	76	144	유년부	1,100
학생부	62	61	123	학생부	1,042
장년부	20	130	150	주일현금	14,093
주일예배	80	320	400	월정현금	16,700
				감사현금	10,000
				기타( )	
합계	230	587	817	합계	42,935

1969. 11. 16. No. 1,077

**축 추수감사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사56:7)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주 후 1909년 3월 첫주일 창립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5번지 전화 2987, 9011

동	사	오	역	유
전	도	조	수	재
"	사	정	영	자
성가대	지휘	회	병	상
성가대 반주	김	김	향	영

AN DONG PRESBYTERIAN CHURCH  
15, An Kook Dong, Chongro ku Seoul, Korea.  
Pastor: Duckyo Oh. Tel. 2987, 9011

### 여전도회 월례회 특강 광고 (1969년 11월 16일자 주보)

시모 이범숙 여전도회 조대 회장의 전통을 따라 공덕귀는 주일은 가족과 함께 보낸다는 취지에서 여전도회 월례회를 주일이 아닌 평일에 잡았다. 그리고 그는 월례회시 특강을 개설하여 회원들의 교양과 안목을 넓혔다.

**교회 소식**

\* 기억하시고 협조하심을 바랍니다

- 오늘 저녁 예배는 평신도회 원십에 배로 봄입니다
- 선교는 월일교회 박석린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 본교회 여전도회 공덕귀 회장께서는 서울시 연합여전도회 회장으로 당선 되었습니다

금주 성방구역과 성방학실분

4월 18일(화) 들판운동 교육동	임대 임 장로 안전선 박계란
4월 19일(수) 광복운동 경문동	이석률 차이희 김남인
4월 20일(목) 등대운동 대동	김종서 장로 이회자 홍경희
4월 21일(금) 용산 한강	안태인 장로 민해연 황발선

<감사현금>

조성미	박우성	안상진	세례 받고	김영호
경예상	박보영	이재광	이재광	김공환
김수원(발결호)	김동미	유아세	유아세	례
이해정	김종찬	조영자	조영자	
이근범(아버님 장례를 마치고)		무명세	(11조)	

<간증현금>

유연준	99,000	한선호	3,300	율보선	33,000
김현수	3,300	박숙녀	1,000		
이승천	1,000	마루다반	18,500		

**『교회 집회시간』**

주 일	1. 유치부 오전 9시	하충	1.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일	2. 유년부 오전 9시	하충	2. 주일예배 오전 11시
학	3. 학생부 오전 9시	분상충	3. 찬양예배 오후 7시 30분
교	4. 장년부 오전 10시	상충	4. 삼일기도회 오후 7시 30분

**주 전 주 일 통계 탄수 (1972. 4. 9) 일기 흐름**

집회별	남	여	계	현금	금액
유년부	45	69	114	유년부	1,185
학생부	37	62	99	학생부	1,330
주일예배	94	214	308	주일현금	6,135
주일저녁	35	82	117	주정현금	70,300
삼일저녁				감사현금	31,700
				기타( )	
합계	211	427	638	합계	110,650

1972. 4. 16. No. 1,200

**풀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별2장5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사56:7)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주 후 1909년 3월 첫주일 창립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5번지 전화 2987, 9011

동	사	오	역	유
전	도	조	수	재
"	사	정	영	자
성가대	지휘	김	진	택
성가대 반주	김	향	향	영

AN DONG PRESBYTERIAN CHURCH  
15, An Kook Dong, Chongro ku Seoul, Korea.  
Pastor: Duckyo Oh. Tel. 2987, 9011

### 공덕귀 여전도회 서울시 연합회 회장 취임 광고 (1972년 4월 16일자 주보)

##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었던’ 공덕귀 회장님(1911-1997)

소외된 자, 역사의식이 없는 여성, 특히 교회여성들과 늘 함께 했던 공덕귀 권사님!

이사야 선지자가 웨쳤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따라

‘여성, 깬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노래할지어다!’라는 주제를 한국기독교 백주년의 해에 여성들에게 외친 선각자인 공덕귀 회장님은 ‘교회일치, 회개운동, 복음에의 새로운 이해, 교회와 민족의 어머니로 거듭나는 일’을 계획하며, 드보라처럼 새로운 역사창조를 이끌어간 우리들의 어머니셨다.

한국 최초의 여성신학자였던 공덕귀 교수(조선신학교 여자신학부 전임강사)는 프린스頓 신학교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해위 윤보선씨와 결혼하면서 유학의 길을 포기했다.

1960년에 제4대 대통령이 된 해위의 영부인으로, 가정의 주부로, 그리고 안동교회에서 제54대-제57대 여전도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그의 폭넓은 사명을 다음과 같이 실천해 나갔다.

- 1 여전도회 월례회는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하는 주일 오후가 아닌 월요일로 정했다. 이것은 시어머님이신 윤명사 역대 회장의 방식이기도 하다.
- 2 여전도회를 연령별로 나누어 60세 이상은 도르가반, 50세 이상은 마리아반, 40세 이상은 마르다반, 40세 이하는 해바라기반으로 나누어 각 지회가 자기 연령에 맞는 활동을 하다.
- 2 여전도회 주최 제1회 선교 대바자회를 열다.
- 3 군대 위문 활동을 시작하다.
- 4 청유부를 신설하여 주일 예배시 유아들을 돌보게 하다.
- 자택의 아름다운 정원에 젊은 부부들을 초청하여 부부 일치의 좋은 계기를 마련하다.
- 6 강사를 초빙하여 교회여성들의 의식을 넓히는 교양강좌를 열고 친목의 시간을 만들다.
- 7 매주일 아침 예배 전에 자택 산장에서 60세 이상의 도르가반을 중심으로 성경공부를 지도했다. 이 성경공부

공덕귀 권사를 증언한 교우 김혜자의 글 ①

는 회장님의 작고하신 3년 전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기독교 2세기를 향한 여성들의 역할과 운동’은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여성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그 운동에 앞장 선 공덕귀 회장님은, 한국 교회여성연합회 실행위원 순교자 기념사업회 회장 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서울연합회 회장을 지내셨고, 농촌교회와 버스안내양 교육에 관심 가지고 활동, 한국 원폭피해자와 재일동포 차별문제, 일본교과서 왜곡 문제, 평화통일과 민주화 인권운동, 교회 일치 운동에 앞장 선 여성 선구자이시다.

너무나 눈 부신 큰 별인데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일부만을 보아왔고, 그분의 전 인격을 대할 틈이 없었던것 같다. 그럼에도 변함 없이 ‘우리와 함께 있었던’ 공덕귀 회장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 교회여성들의 큰 지표가 되어 주시리라 믿는다.

공덕귀 권사를 증언한 교우 김혜자의 글 ②

## 공덕귀 권사

- 1911년 경남 통영에서 공도빈씨와 방말선씨의 7남매 중 둘째로 출생 (4월 21일)
- 1932년 선교부 장학금으로 동래 일신 고등 여학교 입학
- 1936년 일신 고등 여학교를 전교 죄우등으로 졸업하고 일본 요코하마 공립 여자 신학교에 입학
- 1940년 요코하마 공립 여자 신학교 졸업 김천 황금동 교회 천도사 부임
- 1943년 일본 동경 여자 신학 전문학교 편입학  
다음해 김천 황금동 교회로 돌아오다
- 1946년 조선 신학교 여자 신학부 전임강사가 되어 가르치다
- 1948년 프린스頓 신학교로 유학 떠날 준비를 마쳤으나 결혼으로 좌절됨
- 1949년 윤보선씨[해위]와 안국동 자택에서 결혼
- 1960년 해위가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취임하므로 영부인이 되었고
- 1962년 안국동 자택으로 돌아오다
- 1969년 1) 안동교회 여전도 회장을 역임(1969~1972, 제54대~57대)).  
교회 안에서 여신도들의 주체성을 기르고 의식을 바꾸고자 노력하였고  
주일 날 오후 시간을 가족과 보내야 하는 여성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여전도회 월례회를 월요일로 바꾸었으며, 때로는 자택의 정원을 사용하여  
젊은 부부들을 위한 쌍쌍 파티를 열기도 하고, 강사를 초빙하여 교양  
강좌를 개최하였으며,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친목을 도모하였다  
여전도회를 연대별로 나누어 60세 이상은 도로가반, 50세 이상은  
마리아반, 40세 이상은 마르다반. 40세 이하는 해바라기반으로 나누어  
각 지회가 자기 연대에 맞는 활동을 하게 하였다  
여전도회주최 제1회 선교대바자회를 개최하다.  
군 위문 활동 시작.  
청유부를 신설하여 주일 예배시 유아들을 돌보게 함.
- 2) 한국 교회여성연합회 실행위원 순교자 기념 사업회 회장으로 활동.
- 1972년 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 서울연합회 회장.  
이 후 계속하여 농촌교회와 버스안내양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였고  
한국 원폭피해자와 재일동포 차별문제, 일본교과서 왜곡의 문제,  
평화통일과 민주화 인권운동, 교회 개혁 운동에 온 힘을 다 바쳤다.
- 1997년 86세로 타계

공덕귀 권사를 증언한 교수 김혜자의 글 ③

### 3.8 교회 창립 50주년의 여전도회

¶ 「안동교회 약사」(1959)에 수록된 역대 여전도사와 역대 유치원장 명단 (여성은 밑줄 표시)

구분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여전도사	<u>이신실</u>	<u>안찬주</u>	<u>백신영</u>	<u>김숙희</u>	<u>변영하</u>	<u>박애순</u>	<u>윤경애</u>
유치원장	<u>김매분</u>	<u>유각경</u>	김종대	이금식	—	—	—

※ 비고

- 역대 여전도사 중 2대와 3대는 『안동교회 90년사』의 연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역대 유치원장 중 1대와 2대는 해방 전이며 3대와 4대는 해방 이후이다.

¶ 교회 창립 50주년 주일학교 근속 교사 (여성은 밑줄 표시)

구분	이름	직책	기간	이름	직책	기간	이름	직책	기간
중·고등부	이필현	부장	16년	<u>오현주</u>	반사	38년	—	—	—
유년부	안태인	부장	17년	<u>이인선</u>	반사	14년	<u>민정홍</u>	반사	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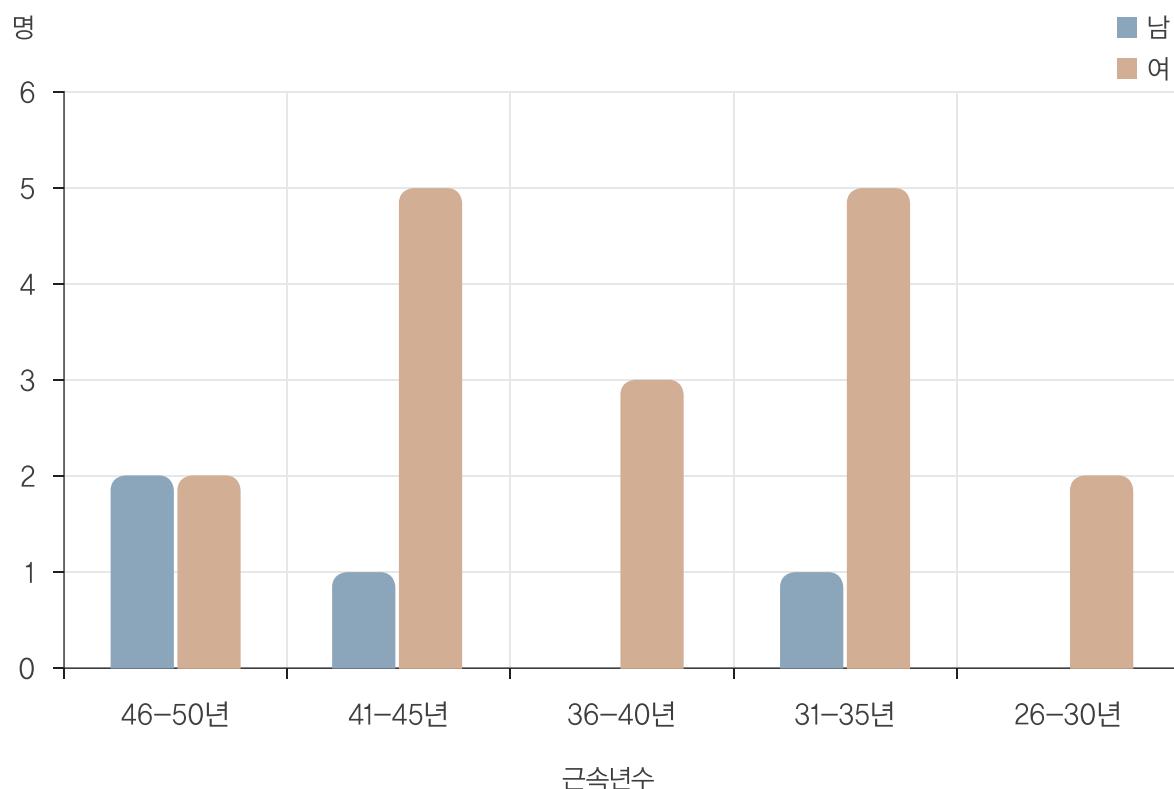
¶ 교회 창립 50주년 근속 교수 (1909–1959)

구분	50년	49년	46년	45년	43년	41년	40년	38년	35년	32년	30년	28년
남 4	정경덕	—	윤택선	—	—	이선일	—	—	백낙성	—	—	—
여 18	유각경	윤명사	—	송정의 허대은 윤예경	윤마리아 변영하	—	윤환란	홍숙자 오현주	유진경 안정완 박애순	김신복 이순정	정승자	정영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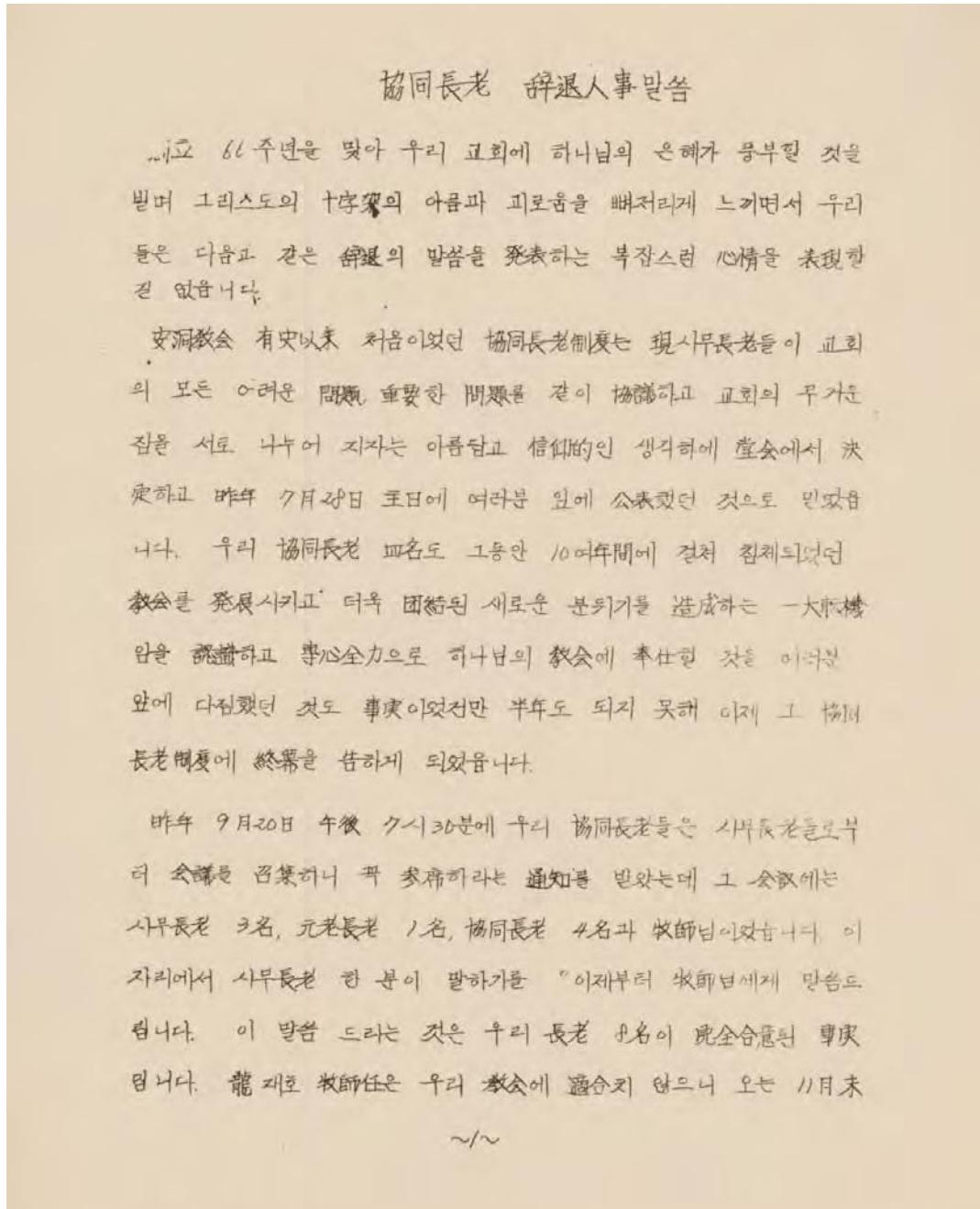
## ¶ 교회 창립 50주년 근속 교우 성별 비교

구분	46~50년	41~45년	36~40년	31~35년	26~30년
남	2명	1명	0명	1명	0명
여	2명	5명	3명	5명	2명

## # 교회 창립 50주년 근속 교우 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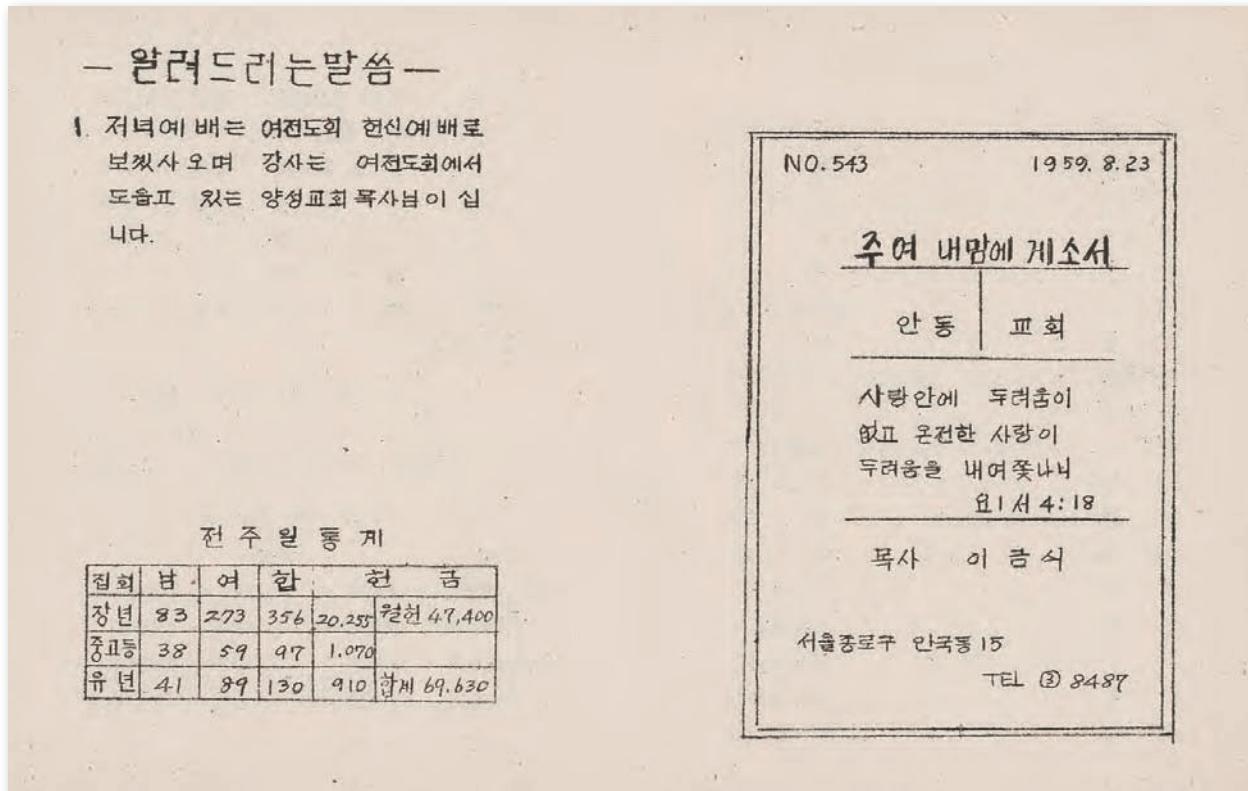


### 3.9 교회 창립 60주년 어간의 여전도회



#### 협동장로 사퇴 인사 말씀 (1975. 3. 9)

안동교회 제9대 목사 용재호는 1974년 7월 협동장로 제도를 제안, 실시했다. 안동교회 최초의 협동장로인 한찬호, 배보석, 추중업, 정석원 4인은 협동 장로제 실시 7개월여 만에 사퇴하면서 총 13쪽에 달하는 사퇴 인사말씀을 남겼다. 사진은 그 중 1쪽.



양성교회 지원 (1959년 8월 23일자 주보)

<b>알려 드리는 말씀</b>					
※ 기억하시고 협조하심을 바랍니다					
1. 저녁에 배는 중고등 학생현신예배로 봉니다 강사는 신당동 중앙교회 조원준 목사님이 오십니다					
2. 여전도회에서는 양주군 양수리교회에 전도사업에 원조를 하여주시기로 결정하여 전도사업을 하고있습니다					
3. 금주십방구역과 길방하설분은 아래와 같읍니다 구역 장노 원사 진사 원찰					
5. 9.(월) 용산 운백선 초정식 운경의 강화영 황말선					
5. 13.(금) 상도동 서호애 박숙난 김남인 민정홍					
[전주일 특별헌금 핵심교우] 주 영 맘 (로침병세 호천) 길 은 조 (이해동 장노 일주기) 을 창 주 을 박					
【교회 집회 시간】					
일 학 교	1. 유치부 오전 9시	하 중	예 배	1. 새벽기도회	오후 5:30
	2. 유년부 오전 9시	하 중	예 배	2. 주일예배	오후 11시
	3. 학생부 오전 9시	상 중	시 간	3. 찬양예배	오후 7:30
	4. 장년부 오전 10시	상 중	간	4. 삼일기도회	오후 7:30
☆ 전주일 통계 탄 ☆ (1966. 5. 1) 일기 끝음					
집 회 회					
현 금 금 액					
집 회 별	남	여	계	현 금 부	금 액
유년부	80	110	190	397	
학생부	77	75	152	630	
주일예배	120	315	435	5,031	
주일발	32	77	109	10,100	
삼일발	10	47	57	10,000	
				부활절현금	
				복음현금	
합 계	319	624	943	합 계	26,158

1966. 5. 8. No. 893

**축 어머니 주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시56:7)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주 후 1909년 3월 첫주일 창립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5번지 전화 2987, 9011

목 사 오	목 수 유
전 도 사 조	수 개
성 가 대 지 위 구	금 쟁
성 가 대 반 주 정	정 명

AN DONG PRESBYTERIAN CHURCH  
15, An Kook Dong, Chongro ku Seoul, Korea.  
Pastor: Duckyo Oh. Tel: 2987, 9011

양주군 양수리교회 원조 (1966년 5월 8일자 주보)

## 양주군 진중리교회 보조 (1966년 7월 3일자 주보)

## 친목회 안내 (1960년 6월 15일자 주보)

건축현금 영수기 (1971년 7월 18일자 주보)



## 김주명의 여전도회 회비봉투 (1950)

### 3. 거리와 교회의 아픔을 품은 신앙의 어머니들 (1945-1976)



김순식 권사 육순 기념 크리스챤 아카데미 하우스 방문 (1968)



여전도회가 지원하는 영락양로원 방문 (1968)

좌로부터 김효수 이정숙 김희진



야외예배 (1956)



노권사님들 (일자 불명)

좌로부터 ○○○ 김은조 이규숙 이삼득 조수재 김효숙 최아지 이해정 방순실 이윤돌 조정석 홍경희



김순식이 설립한 월문교회 주보  
(1959년 4월 5일 설립)



순광유치원의 개원 예배 모습 (1959. 4. 15)



순광유치원을 설립한 김순식 (1959. 4. 15)

김순식은 우리 교회 초대 여성 장로 박숙란의 모친이다. 1947년 부군과 함께 평남 순천에서 월남한 그는 남대문 교회에 출석하여 세례를 받고 1948년부터 안동교회 옆에 살면서 안동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1958년 병석에서 세례를 받고 별세한 남편 박미수의 산소가 있는 경기도 남양주군 월문리에 그 이듬해에 월문교회를 설립했으며 1979년에는 경기도 양주군 봉암리 28사단 역내에 진중교회인 필승교회를 설립했고 월간 「새가정」 재정위원 및 절제회 임원을 역임했다. 1975년에는 통일교로 넘어갈 뻔한 숭의학원을 인수하여 그가 쓰러지던 1985년까지 이사장으로 헌신했다. 1977년 시무권사로 취임한 그는 교회 일에 항상 적극 협력하였으며 1979년 건축된 새 성전의 스테인드글라스를 헌납했다. 당시 담임목사였던 유경재는 이 헌납을 가리켜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선물'로 기록했다. 그는 또한 교회 냉방 시설을 헌납한 일도 있다. 1998년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유족은 교회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마련에 힘을 더했다.



김순식이 현납한 스테인드글라스

1979년 9월 제작 시작, 1980년 4월 설치 완료